2011.11.23 NO.135
gonggam.korea.kr

Weekly 공감

인생 2모작

준비하세요 그리고 누리세요 P31~47

'지구촌 개발원조의 미래' 부산총회에서 집대성한다 P12~13

금연 홍보대사 박명수 "담배 버리면 건강이 생겨요" P54~55

베이비붐 세대가 웃어야 할 이유

송양민
가천대학교 보건대학원장

베이비붐 세대들이 정년퇴직을 맞는 시점이 되면서 이들을 조명하는 신문기사와 방송 특집들이 자주 등장하고 있다. 베이비붐 세대가 주목받는 이유는 7백12만명(전체 인구의 14.6퍼센트)에 달하는 엄청난 인구집단이라는 사실 때문이다.

최근 언론에 비치는 베이비붐 세대의 모습은 음울한 것들이 많다. 자식 키우느라 돈을 다 써버려 노후생활이 불안하고, 청춘을 바친 직장에서 구조조정의 칼바람을 맞아 거리로 밀려나고 있다는 ‘비장한 스토리’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모습이 진짜 베이비붐 세대의 얼굴일까? 하지만 미디어가 그리는 불안한 노후는 베이비붐 세대의 여러 얼굴 가운데 하나에 불과할 뿐이다.

베이비붐 세대는 군사독재의 대한민국을 민주화로 이끌고, 경제 부흥의 견인차 역할을 한 ‘산업화와 민주화’의 주역이다. 산업화의 경우 미국과 일본, 독일, 영국 등 선진국들이 1백~2백 년에 걸쳐 이룩했던 것을 우리나라는 50여 년 만에 성취해 내는 기적을 이뤄냈다. 베이비붐 세대는 이런 산업화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몸으로 체험하고 지켜본 세대다.

베이비붐 세대가 태어나서 활동하던 지난 55년 동안 대한민국이 성취한 경제적 업적은 가히 기적이라고 부를 만하다. 1955년 65달러에 불과했던 1인당 GNI(국민총소득)는 2010년 2만7백59달러로 늘어났다. 불과 두 세대 만에 선진국 문턱까지 급상승한 것이다. 이런 경제발전 과정에 베이비붐 세대가 크게 기여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이끌고, 경제 부흥의 견인차 역할을 한 베이비붐 세대가 이제 정년을 맞고 있다. 7백12만명에 달하는 이 세대는 대체로 90세까지 살 것으로 보여 은퇴를 해도 또 한번의 인생을 살아야 한다. 이제 이들에게 ‘다시 일하고 삶의 보람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런 경제발전을 통해 베이비붐 세대는 대한민국 사회를 떠받치는 중산층의 핵심세력으로 자라났다. 중산층은 생리적으로 급격한 사회변화보다 점진적인 사회변화를 원한다. 그래서 ‘민주주의의 보루’라고 불린다. 베이비붐 세대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가장 강력한 중산층 세력을 형성한 세대로 분석된다.

그 베이비붐 세대가 이제 정년을 맞고 있다. 평균수명이 매년 4~5개월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할 때, 베이비붐 세대들은 대체로 90세까지 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은퇴를 한다 하더라도 30년 이상의 또 한번의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얘기다. 기나긴 ‘제2의 인생’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에 대해 스스로 깊은 성찰(省察)을 해야 하겠지만, 국가와 기업들도 이들에 대한 배려를 해야 할 것이다. 베이비붐 세대가 생활비와 의료비를 국가가 보살펴줘야 하는 ‘무력한 계층’으로 전락하면 그 비용은 천문학적인 금액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정년이 됐다는 이유로 무작정 사회에서 퇴출시키기보다 이들에게 ‘다시 일하고 삶의 보람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직장을 잃는 것이 곧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의미하는 한국적인 경제상황하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베이비붐 세대들도 90세 장수시대를 맞아, 이제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건강하고 보람 있게 사느냐’에 더욱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때이다. G

Contents

NO.135 2011.11.23 통권 236호

31

재취업… 봉사… 나눔 장밋빛 제2의 인생

베이비붐 세대가 누구입니까. 어려운 시절에 태어나 우리나라의 경제와 사회 발전을 이끈 견인차였습니다. 전후의 가난을 극복하고 민주화를 이뤄 냈으며 경제위기를 온몸으로 헤쳐 나온 역전의 용사들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은퇴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에 대한 열정만은 여전합니다. 이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면 우리 사회의 미래는 더욱 밝아질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 사회 최고의 숙련인력이니까요. 고령사회를 극복하는 해법도 여기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인생 2모작, 3모작의 꿈을 위한 대책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표지 이야기 | 서울 신림동 원룸촌의 '착한부동산 골목바람' 식구들입니다. 또래 젊은이들의 주머니 사정에 맞는 쌈직한 방들을 찾아주고, 객지 생활하는 청년들을 위로하는 조촐한 밥자리 술자리도 마련하며, 동네 어르신들 모시고 서커스 나들이도 다녀오는 마음 따뜻한 청년들입니다. 사진·박경아 기자

52

54

56

위클리 공감 http://gonggam.korea.kr
발행일 2011.11.23 **발행처** 문화체육관광부 **발행인** 최광식 **제작협력** 조선뉴스프레스 **인쇄제본** 타라티피에스 **문의** 02-3704-9668 **정기구독** 02-2625-3294
〈Weekly 공감〉에 수록된 내용은 정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알림** 이 책을 펼치면 오른쪽 윗부분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변환 바코드가 인쇄돼 있습니다.
이 잡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부 정책을 빠르고 쉽게 알리기 위해 무료로 배포하는 주간지입니다.

Lounge 공감라운지

〈Weekly 공감〉은 독자 여러분과 소통하고자 다양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주소, 전화번호와 함께 12월 8일(목) 오전까지 gonggam@korea.kr로 보내주십시오. 관심 있게 읽은 기사, 기획특집에 대한 의견, 앞으로 다뤘으면 하는 내용 등 다양한 독자 의견을 보내주시면 〈Weekly 공감〉 제작에 반영하겠습니다. 의견이 채택된 분에게는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지난호를 읽고]

한·미FTA 괴담 하루빨리 사라졌으면

134호 '한·미FTA 바로 알기' 기사 잘 읽었습니다. 잘못된 루머 중 특히 의약품 허가와 특허 연계제도 도입으로 외제의 비싼 신약만을 구입해 약값 부담이 증가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가지 않는 얘기였습니다. 물론 한·미FTA가 상호주의에 입각한 협정이다 보니 우리에게 다소 불리한 조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루머들은 우리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괴담들이 하루빨리 사라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지영 (주부·부산 북구 용수로)**

'화제의 책' 서평 기다려집니다

가을을 일컬어 '독서의 계절'이라고는 하지만 무수히 많은 신간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현실에서 좋은 책을 골라 읽는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134호에 소개된 화제의 책 〈탐험가의 눈〉 서평은 제 안에 잠자고 있던 '탐험본능'을 깨워주는 길잡이가 되었습니다. 매주 서너 권씩 소개되는 서평을 스크랩하는 즐거움은 책 읽는 즐거움 못지않게 제 마음을 설레게 합니다. 그래서 〈위클리 공감〉이 더 기다려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김해찬 (학생·경남 진주시 하대동)**

청소년 지켜주는 셧다운제 안심입니다

134호 '셧다운제는 게임 중독 청소년 지킴이' 기사 잘 읽었습니다. 게임 중독이 이렇게 무서운 것인 줄 몰랐습니다. '누구는 게임 때문에 집 밖을 안 나온다더라' 하는 이야기가 남 일 같지 않더라고요. 특히나 청소년의 게임 중독은 정상적인 학습을 불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육체적인 성장도 저해한다니 신경을 써야 할 것 같네요. 셧다운제 시행을 앞두고 우리 사회가 청소년의 건강한 여가활동에 더욱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혜지 (주부·전북 진안군 정천면)**

'이 사람' 읽고 용기와 희망 얻어

134호 '이 사람'에 소개된 이순재씨 기사가 인상 깊었습니다. '노인들의 이야기가 중국에서도 통했다'는 말에 제가 근무하는 장애노인생활시설 어르신들 모두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76세의 이순재씨가 남우주연상을 받고 영화와 드라마에서 활약하는 모습은 여기 계신 많은 어르신께 용기와 희망을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왕성하게 활동하는 이순재씨를 보면서 세월의 무게에 어깨를 내린 이 땅의 많은 아버지, 어머니들도 함께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김종신 (사회복지사·경남 산청군 산청읍)**

"2040 아픔 공감하면서도 희망 갖게 돼"

최수애 (39·광주광역시 서구 양동)

광주광역시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는 최수애씨는 〈위클리 공감〉을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빠뜨리지 않고 읽는 열혈독자다. 최근 '김장철 김치 담그는 법'이나 '좋은 재료 고르는 법'을 소개해 달라는 독자 의견이 많은데, 5, 6세의 연년생 남매를 둔 워킹맘인 최씨 역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최근 관심 있게 읽은 기사는 무엇인가요.

"지난주 〈위클리 공감〉 기획특집에 소개된 '진화하는 글로벌 코리아' 기사가 기억에 남아요. '대한민국이 IT분야에서 세계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는 소식에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뿌듯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134호를 읽고 나니 '포커스'에 나온 게임 중독 청소년들 소식에 한편으론 씁쓸하기도 하네요. 하지만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셧다운(shut down)제'가 11월 20일부터 시행된다고 하니 어느 정도는 안심이 됩니다."

134호에서 인상깊었던 기사는.

"이번 134호 기획특집 '2040세대'의 '혼자 꾸면 꿈이지만 함께 하면 희망이 된다'는 문구를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세계적인 경제대란 속에서 집 한 채를 장만하기 위해 아등바등 살고 있는 제 모습에 눈물이 났고, 아이들은 커가는데 미래는 보이질 않아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렇지만 나에게는 든든한 우리 남편이 있고, 사랑스러운 우리 아이들이 있기에 다짐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희망'이라는 단어를 가슴에 품으면서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해야겠다고."

〈위클리 공감〉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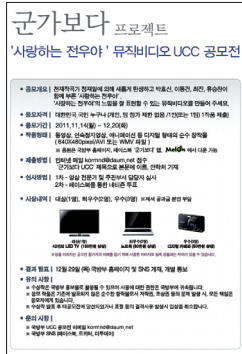
"김장철이 다가옵니다. 김장을 테마로 '김장 맛있게 담그는 비법'이나 '배추를 알맞게 절이는 방법' 등을 알려주세요. 배추나 무, 젓갈이나 양념(고춧가루, 파, 마늘, 생강)류 고르는 법도 소개해 주시고요. 거기에 김장한 김치를 싱싱하게 보관하는 방법까지 알려주시면 저 같은 주부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글·박소영 기자

알림

'사랑하는 전우야' 뮤직비디오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군가보다 프로젝트
'사랑하는 전우야' 뮤직비디오 UCC 공모전

국방부는 오는 12월 20일까지 리메이크 군가 '사랑하는 전우야'의 뮤직비디오를 공모한다. '사랑하는 전우야'는 국방부 홍보지원대원 박효신, 미쓰라 진, 이동건 등이 부른 리메이크 군가로, 작곡가 정재일이 새롭게 편곡한 곡이다. 이번 공모전의 1차 심사는 영상 전문가가 담당하며, 2차는 네티즌들이 페이스북을 통해 직접 심사할 예정이다. 수상작은 국방부 홍보물로 활용된다.

응모 기간 | 12월 20일까지
응모 자격 | 누구나(개인, 팀 참가 제한 없으나 1인 1작품 제출을 원칙으로 함)
작품 형태 | 동영상, 연속 정지 영상, 애니메이션 등 디지털 형태의 순수 창작물
참가 방법 | kormnd@daum.net으로 접수
심사 방법 | 1차 영상 전문가 및 주관 부서 담당자 심사
2차 페이스북을 통한 네티즌 투표
결과 발표 | 12월 29일 국방부 홈페이지 및 SNS 게재, 개별 통보
시상 내역 | 대상 1팀 1백50만원 상당의 42인치 LED TV 등 총 6팀 시상
국방부 www.mnd.go.kr ☎ 02-748-1111

문화재청 초조대장경 특별전에 초대합니다

문화재청은 청 발족 50주년을 맞아 오는 12월 18일까지 초조대장경(初雕大藏經) 판각 천 년 기념특별전을 연다.

'천 년의 기록, 내일을 열다'를 표어로 내건 이번 전시에는 국보와 보물로 지정된 초조대장경과 재조대장경(팔만대장경) 관련 유물 51점이 출품된다.

초조대장경은 1011년에 거란의 침입을 물리치기 위해 판각한 국내 최초의 목판대장경으로, 중국 북송 때 만들어진 개보칙판대장경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만들어진 한역대장경이다.

출품작은 국보 243호 초조본현양성교론 권11(初雕本顯揚聖敎論 卷十一)과 국보 266호 초조본 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75(初雕本大方廣佛華嚴經 周本 卷七十五), 국보 32호 합천 해인사 대장경판 등 국보 19점, 보물 13점에 이른다.

특히 해인사 대장경판은 이번 전시를 끝으로 일반에 공개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져, 이번 특별전이 해인사 대장경판을 감상할 마지막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기간 | 12월 18일까지
장소 | 국립고궁박물관 기획전시실 2층
규모 | 초조대장경 국보·보물 등 51점
문화재청 www.cha.go.kr ☎ 042-481-4688

공감퍼즐

		1			
	2			3	
	4			5	6
7			8		
			9		

빈칸의 답을 '공감퍼즐 몇 호'라는 제목과 함께 주소, 전화번호를 적어 12월 7일 오전까지 jjsmall@korea.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아이폰 〈정책투데이〉 앱에서도 응모하실 수 있습니다.

가로
2. 한·미FTA 비준을 둘러싸고 쟁점이 되고 있는 '투자자 국가소송제도' 영어 이니셜을 소리나는 대로 적으면?
4. 위쪽 부분. 더 높은 직위나 관청.
5. "모든 길은 OO로 통한다."
7. 형수나 손위 처남의 아내를 부르는 말이기도 하고, 결혼한 여자를 예사롭게 부르는 말이기도 합니다.
9. 금반지도 아니고 구리 반지도 아니고….

세로
1. 1950년대 중반에서 1960년대 초·중반에 태어나 경제성장에 이바지한 세대를 이르는 말.
3. 자기 자신. 자신의 힘으로.
4. 지난주에 개방한 명품 보가 있는 도시는? 이곳 하면 낙동강, 자전거, 곶감이 떠오르죠.
6. 짚을 원료로 하여 만든 빛이 누런 종이. 판지. 초등학교 미술시간에 이 종이로 공작을 했죠.
8. 'ㄴ'

〈Weekly 공감〉 133호(11월 9일자) '공감 퍼즐' 정답
가로 1 백로 2 애호박 4 장바구니 7 투명 8 정화수
세로 1 백일장 2 애니 3 박영석 5 구원투수 6 상정

〈Weekly 공감〉 133호 '공감 퍼즐' 당첨자
김숙희·울산시 남구 무거동
김찬주·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박민영·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이지영·전남 완도군 완도읍
최성열·충북 청주시 흥덕구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1월 18일 인도네시아 발리 누사두아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4회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잉락 친나왓 태국 총리, 응웬떤중 베트남 총리, 이 대통령,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인도네시아 대통령, 훈센 캄보디아 총리, 하사날 볼키아 브루나이 국왕, 통싱 탐마봉 라오스 총리.

아시아 정상들과 동반협력 강화 '합의'

이명박 대통령 "아세안이 세계경제위기 극복 앞장서 달라"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1월 14일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폐막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에 이어 사흘 만인 17일 인도네시아 발리로 향했다. 인도네시아 국빈방문,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ASEAN) 정상회의,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참석하는 등 바쁜 일정을 소화하며 활발한 '아시아권 정상외교'를 펼친 것이다.

지난 11월 17일 한·인니 정상회담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유도요노 대통령이 실무진들과 함께 경협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1월 18부터 이틀동안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한·아세안 정상회의, 아세안+3 정상회의, 그리고 동아시아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이어 20일부터 사흘간 필리핀을 국빈 방문하는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관계 증진을 논의했다.

지난 11월 17일에는 이번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의 의장국인 인도네시아의 유도요노 대통령과 양자회담을 가졌고, 19일에는 한·중·일 3국 정상들이 만났다. 이 대통령은 아세안 정상회의의 부대행사로 열리는 '아세안 비즈니스 투자서밋'에도 참석해 유도요노 대통령과 함께 기조연설을 통해, 한·아세안 차원의 무역·투자 등 포괄적인 경제협력을 위한 우리 정부의 기여 의지를 표명했다.

인도네시아 국빈방문
'한·인니 경제협력 사무국' 자카르타에 설치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1월 17일 발리 누사두아 컨벤션센터(BNDCC)에서 유도요노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에서 두 나라 정상은 2006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이후 더욱 공고해지고 있는 양국 관계를 평가했다. 특히 정치·안보, 경제·통상, 농업과 환경, 문화교류, 지역과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두 정상은 지난 5월 국산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의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양국 간 전투기 공동개발 사업 등을 통해 구축된 국방 및 방위산업 분야에서의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인도네시아가 2025년 세계 9대 경제대국 건설을 목표로 야심차게 추진중인 '마스터 플랜 2011-2025'에 한국이 주 파트너로 적극 참여해 발전경험을 공유하기로 했다.

양측은 이를 위해 '한·인니 경제협력 사무국'을 자카르타에 설치하기로 하고, 양국 정상이 참석한 가운데 지식경제부 장관과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 장관 간에 사무국 운영지침에 서명했다. 또한

11월 17일 발리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아세안 비즈니스 투자서밋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

11월 18일 아세안+3 정상회담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한 각국 정상. 오니쪽부터 베니그노 아키노 필리핀 대통령,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 잉락 친나왓 태국 총리, 응우옌떤중 베트남 총리, 이명박 대통령,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인도네시아 대통령, 원자바오 중국 총리, 훈센 캄보디아 총리, 하사날 볼키아 브루나이 국왕, 통싱 탐마봉 라오스 총리, 나집 라작 말레이시아 총리, 테인 세인 미얀마 대통령.

발리 누사두아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의 연설을 경청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

장기적 관점에서 '2020년 양국간 교역액 1천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하는 '한·인도네시아 중장기 경제협력 비전'에도 합의했다.

한·아세안 정상회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확대발전에 긴밀협조

제14차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한국과 아세안 정상들은 지난해 10월 하노이에서 열린 제13차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한·아세안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아세안 내 개발격차 축소와 호혜적인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양측 간 긴밀하게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한·아세안 정상들은 기후변화 대응과 녹색성장 분야, 양측 간 교역증진 등 경제통상 분야, 비확산 등 협력증진 방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아세안 FTA 상품협정 개정 의정서'와 '한·아세안 산림협력협정'이 각각 서명됐다. 이는 한·아세안 간 교역증진과 기후변화 및 녹색성장 분야에서 협력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이 대통령의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을 통해 우리 정부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는 아세안과의 실질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수 있게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아세안 비즈니스 투자서밋 기조연설
"인도네시아 경제개발 주 파트너로서 협력"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7일 인도네시아 발리 인터내셔널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2011 아세안 비즈니스 투자서밋' 개막식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했다. 아세안+3 및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참석한 18개국 정상 중 개최국인 유도요노 인도네시아 대통령 외에 개막식 기조연설은 이 대통령이 유일하다.

서밋에는 유도요노 인도네시아 대통령, 수린 핏수완 아세안 사무총장 등 주요 인사와 아세안 각국의 기업인들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기조연설을 통해 "유도요노 대통령이 강력한 리더십으로 인도네시아의 민주화, 사회통합과 경제성장을 일궈냈다"고 평가하고, "한국은 인도네시아 경제개발 마스터플랜의 주 파트너로서 무역·투자, 산업, 에너지, 인프라, 농림수산, 환경 등 전 분야에 걸쳐 한·인도네시아 포괄적 경제협력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아세안+3 정상회의
동아시아지역 FTA 논의 활성화 의견 교환

이명박 대통령은 제14차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도 참석, 아세안+3 협력 성과와 미래 방향에 대해 참석 정상들과 협의했다. 최근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식량안보에 대응하는 한편, 국제금융 공조 분야에서 아세안+3 차원의 협력 진전을 평가하고, 경제통합 증진을 위한 동아시아지역 FTA 논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여타 참석 정상들과 의견을 교환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지난 10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2차 동아시아비전그룹(EAVG II) 창립회의 결과를 평가하면서, 아세안+3 미래 방향 설정을 위한 비전그룹의 역할에 대한 기대를 표명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지난 11월 19일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에도 참석했다. 3국 정상은 지난 9월 1일 서울에 설립된 '3국 협력 사무국'의 출범을 평가하며, 올해 5월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제4차 3국 정상회의 때 합의했던 사항들을 점검하고, 향후 협력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동아시아정상회의
미국·러시아 첫 참석… 역할 확대 등 논의

이명박 대통령은 제6차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참석, EAS 차원의 동아시아 지역협력 증진방안을 협의했다. 이번 EAS는 미국과 러시아가 최초로 참석하는 회의다. 미국은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며, 미 대통령의 EAS 참가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미국이 진정한 '태평양 국가'의 일원으로서 중국의 패권주의를 적극적으로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평가된다.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11월 17일 호주 의회 연설에서 "미국은 태평양지역의 강대국이며 계속 그렇게 남을 것"이라고 말한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다. G

글·오동룡 기자

제19차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1월 13일 하와이 호놀룰루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정상 업무오찬을 마친 뒤 각국 정상들과 기념촬영을 했다. 윗줄 왼쪽부터 키티랏 나라농 태국 부총리, 리센룽 싱가포르 총리, 오얀타 우말라 페루 대통령, 빌 잉글리시 뉴질랜드 재무장관, 나집 라작 말레이시아 총리, 이명박 대통령, 브루노 페라리 멕시코 경제부장관, 피터 오닐 파푸아뉴기니 총리, 베니그노 아키노 필리핀 대통령, 롄잔 대만 명예주석, 쯔엉떤상 베트남 국가주석. 아랫줄 왼쪽부터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인도네시아 대통령,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 스티븐 하퍼 캐나다 총리, 줄리아 길라드 호주 총리,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 하사날 볼키아 브루나이 국왕, 세바스티안 피녜라 칠레 대통령, 도널드 창 홍콩 행정수반.

1 APEC 참석차 하와이를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이 지난 11월 12일 하와이 펀치볼 국립묘지를 방문해 헌화한 후 참전용사들을 격려하고 있다. **2** 이 대통령이 APEC 정상회의에서 후진타오 국가주석과 악수하고 있다. 후진타오 주석 뒤로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총재가 보인다. **3**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만나 담소를 나누는 이 대통령.

"한국정부의 규제개혁 노력 보이십니까"

이명박 대통령, APEC 정상회의서 역설…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 설명도

프랑스 칸 G20 정상회의에 참석해 세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 공조를 제안한 이명박 대통령의 글로벌 외교행보가 확장을 거듭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하와이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세계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보호무역을 벗어나 시장 개방의 확대가 필수"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와 함께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APEC 회원국 간 규제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1월 13일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개최된 제19차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해 회원국 정상들과 '완벽한 지역경제(Seamless Regional Economy)'를 주제로 역내 무역 자유화, 규제 개혁, 녹색성장 촉진 등을 통해 아태지역의 경제성장과 통합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정상회의에는 APEC 21개 회원국 정상이 참석했다.

오찬연설에서 이 대통령은 '규제개혁과 경쟁력'을 주제로 한국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과 성과를 소개했고, 이에 다른 회원국 정상들의 상당한 호응을 얻었다.

21개 회원국 정상 '호놀룰루 선언' 채택

이 대통령은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기업이 창의와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규제개혁이 필요하다"면서 "한국 정부는 효과적인 규제개혁을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설치해 규제개혁을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런 노력의 결과 지난 10월 발표된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에서 우리나라가 2007년 183개국 중 30위에서 올해 22계단 상승한 8위로 도약한 사실도 언급했다.

이번 APEC 회의에서는 녹색성장도 화두였다. APEC 참가국 정상들은 에너지 효율성 제고와 에너지 공급원 다양화를 위한 경험을 공유했고, 환경상품과 서비스 자유화, APEC 에너지 효율성 제고 목표의 상향 조정, 화석연료 보조금의 단계적 철폐 등 역내 녹색성장 촉진을 위한 APEC의 노력을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에너지 효율 제고와 에너지 공급원 다양화 등을 통한 에너지 안보 확보는 한국의 저탄소·녹색성장 정책의 핵심 내용"이라고 강조하고,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스마트그리드 등 우리의 녹색성장 정책 사례를 소개했다. 정상들은 이번 회의를 마치면서, 지역경제 통합 강화와 무역 확대, 녹색성장 촉진, 그리고 규제협력과 수렴을 위한 구체적인 합의사항을 담은 '호놀룰루 선언'을 채택했다.

한편 한·미 양국은 지난해 11월 이후 추진돼 온 양국의 '신분이 확인된 여행객(Trusted Traveler)'을 대상으로 하는 자동출입국심사 제도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 위해 준비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한·미 양국 간 '신분이 확인된 여행객'은 출입국심사관리관과의 대면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해 신속하고 편리한 여행이 가능해진다.

호놀룰루서 파푸아뉴기니 총리와 정상회담

이 대통령은 이날 호놀룰루에서 피터 오닐 파푸아뉴기니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파푸아뉴기니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의 투자 등 활동에 대해 파푸아뉴기니 정부가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오닐 총리는 "도로, 댐, 발전소 등 주요 인프라 구축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참여가 그간 파푸아뉴기니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됐다"면서 우리 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협력 의사를 표명했다. G

글·오동룡기자

오는 11월 29일 세계개발원조총회가 개막하는 부산시 해운대구 우동의 전시컨벤션센터 벡스코.

지구촌 개발원조 미래 부산에서 '집대성'

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 11월 29일 열려… 1백60여 개국 정부·NGO 대표 참석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효과적인 개발원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시작한 세계개발원조총회가 부산에서 열린다. 부산은 개발원조에 있어 상징적인 도시다. 6·25전쟁 직후 원조물품을 하역하던 항구에서 몇십 년 만에 이 같은 국제회의를 개최하는 도시로 변모한 자체가 성공적인 개발원조의 롤모델인 것이다.

전 세계 1백60여 개국 2천5백명이 한자리에 모여 보다 효과적인 개발원조 방안을 모색하는 제4회 세계개발원조총회(HLF-4)가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다.

세계개발원조총회는 OECD가 보다 효과적인 개발원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시작한 최대 규모 국제회의. 국제 개발원조 분야의 주요 이슈를 논의하고, 관련 원칙과 규범을 제정하는 개발원조 분야 최고 권위의 회의다. 이번 세계개발원조총회에는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을 비롯해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 멜레스 제나위 에티오피아 총리, 조제 하무스 오르타 동티모르 대통령, 폴 카가메 르완다 대통령, 라니아 요르단 왕비 등 정상급 인사들이 참석한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등 정상급 인사들 참석

또 개발원조의 수혜국·공여국 대표들과 함께 비정부기구(NGO), 학자 등이 모여 원조효과(Aid Effectiveness)를 논의하게 된다. OECD는 1948년 미국 주도로 유럽부흥계획(마셜 플랜)을 시작한 이래 국제적 원조를 지속해 왔으나 개발도상국들의 빈곤문제가 실질적으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세계개발원조총회를 개최해 왔다. 2003년 로마에서 첫번째 세계개발원조총회를 개최했으며, 2005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차 회의에서는 효과적인 원조를 위한 5대 원칙을 담은 '파리 선언'을 발표했다. 2008년 가나 아크라에서 개최된 제3회 회의에서는 행동계획을 수립했다.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 참석자들.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 라니아 요르단 왕비.

한국을 모델로… '부산 가이드라인' 채택 전망

이번에 열리는 제4회 세계개발원조총회는 이전의 개발원조 효과를 최종 평가하고, 향후 개발협력의 비전과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OECD는 개발원조사에 한 획을 그을 이번 제4회 회의가 가진 중요성과 의미를 부각시키고자 '제4차 원조효과 고위급 포럼'에서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로 명칭을 변경했다.

개발원조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자리바꿈한 나라가 OECD의 세계개발원조총회를 개최하는 것은 부산 총회가 처음이다. 이번 부산 총회에서는 한국의 사례를 개발원조의 모델로 삼는 '부산 가이드라인'이 채택될 전망이다.

글·박경아 기자

홍성화 준비기획단장

"회의 일정 촘촘하지만 성공 개최에 최선"

"세계개발원조총회가 원조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변모한 국가에서 처음 개최된다는 사실 자체가 개도국들에는 '하면 된다'는 희망을, 선진국들에는 개발 효과에 대한 확신을 심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홍성화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 준비기획단장은 11월 30일 개막하는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의 개최 의미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부산이 세계개발원조에 있어 어떠한 상징성을 갖는지.

"부산 자체가 개발원조에 있어 롤모델이 되는 도시입니다. 6·25전쟁 직후 원조물품을 하역하던 항구에서 몇십 년 만에 이 같은 국제회의를 개최하는 도시로 변모한 자체가 성공적인 개발원조 모델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나라 입장에서 이번 총회 개최는 의미가 큽니다.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개발 의제를 제안하고 '서울컨센서스'를 채택한 데 이어 이번 총회를 통해 새로운 개발 협력의 방향과 틀을 제공하는 중심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니까요. "

국제적 개발협력 차원에서 부산 총회는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지.

"부산 총회는 신흥경제국, 시민사회단체, 민간기업까지 다양한 원조공여주체가 모두 참여함으로써 새로운 글로벌 파트너십 확대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 과거 원조규범은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관리하느냐는 절차적 문제에 중점을 뒀다면 이번 총회에서는 절차의 효율성뿐 아니라 원조 수혜국의 실제 개발로 이어지는 개발 효과에 중점을 두게 될 것입니다."

어떤 형식으로 부산 총회가 진행되는지요.

"2박3일 동안 수십 개 회의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정부대표들 간의 회의 이외에도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포럼이 50개가량 개최됩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게 의회포럼입니다. 현재 90여 명이 참가 등록을 했는데, 한 나라가 개발전략을 수립하고 이해하는 데 있어 국민과 정부 사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각국 의원들입니다. 청소년 포럼도 개최됩니다. 전 세계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제에세이콘테스트 최우수 수상자 4명을 비롯해 부산 총회 서포터스, SNS기자단 등 총 1백50명가량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민간기업들의 포럼도 열리고요."

개최국 입장에서 부산 총회 개최를 통해 어떤 성과가 기대되고 있습니까.

"이번 세계개발원조총회는 다양한 당사자들로 참가가 확대돼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립니다. 서울 G20 정상회의에 이어 이번 세계개발원조총회를 개최함으로써 국격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부산에 대한 홍보 효과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산=개발'이란 이미지가 구축되어 향후 원조, 개발 분야의 국제회의 유치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부산 총회 개최에 따른 직접적인 경제적 파급 효과 또한 작지 않습니다. 생산유발 효과 2백47억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 1백4억원, 고용유발 2백78명 등 직접적 경제효과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관세 없어져 中·대만과 가격경쟁 해볼 만

자동차부품·섬유·석유화학·정부조달 등 중소기업 35개 수출유망상품 선정

중소기업이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 시장은 더욱 그렇다. 내로라하는 세계적 기업들과 경쟁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미FTA는 미국시장에 진출한 중소기업에 기회가 된다. 관세철폐로 가격경쟁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부품, 섬유, 석유화학 등의 산업이 특히 큰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최근 한·미FTA를 계기로 수출이 유망한 35개의 중소기업 상품을 선정해 발표했다. 3년 안에 관세가 '조기 철폐'되는 품목 가운데 미국 수입시장 규모가 1천만 달러 이상인 것을 대상으로 했다. 중소·중견기업이 취급하는 품목이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볼트·너트, 12.5퍼센트 고관세 철폐로 당장 수혜

자동차부품 산업 중에서는 볼트·너트, 자동차공조용 부품, 냉간단조 부품, 풀리, 덕타일주물제품, 자동차용 전기배선장치, 브레이크패드, 에어백, 가스킷과 실 등 9개 품목이 유망상품으로 선정됐다. 특히 볼트·너트와 브레이크패드 등을 밝게 전망했다.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요와 가격인하 효과가 맞물리며 시너지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볼트와 너트는 관세철폐의 혜택을 톡톡히 볼 것으로 예상된다. 가격경쟁이 치열한 품목인 데다 현행 관세율이 5.7~12.5퍼센트로 자동차부품 평균 관세율 2.5퍼센트보다 몇 갑절 높다. 한·미FTA가 발효돼 이 고관세가 사라지면 현재 수입제품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과 대만산 제품과의 가격차이를 상당부분 극복할 수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생존하려면 가격경쟁력 외에 브랜드 인지도 향상, 품질관리 강화, 커뮤니케이션 능력 제고 등의 과제를 극복

한·미FTA는 공작기계 등 기계산업의 가격경쟁력을 강화해 미국시장 점유율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인 바이어들이 서울국제공작기계전을 둘러보고 있다.

해야 한다고 코트라는 조언했다.

브레이크패드는 중국산 제품을 빠르게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미국의 브레이크패드 시장은 전통적인 AS브랜드와 새로 등장한 유통업체의 힘겨루기가 한창이다. 중국산 제품은 유통업체를 통해 많이 공급됐다. 저렴한 가격이 무기였다. 하지만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하며 신뢰도가 떨어졌다. 브레이크패드는 안전과 직결된 제품이어서 중국산 제품 대신 한국산을 찾는 업체들이 늘고 있다. 2.5퍼센트의 관세철폐는 한국산 제품의 인기를 한층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섬유산업에서는 폴리에스터 섬유사, 여성용 드레스, 인조섬유 파일편직물, 양말, 면섬유 유아·아동용 의류 및 액세서리, 폴리에스터 단섬유직물, 카매트 등 7개 품목이 기대를 모았다. 폴리에스터 섬유사와 카매트가 특히 주목을 받았다.

미국 폴리에스터 섬유사 시장은 경기회복과 면화가격 상승에 따라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업체는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다. 중국, 대만, 인도 등 가격경쟁력을 내세운 제품에 밀리는 양상이다. 지난해에는 시장점유율 1위를 중국에 내주고 말았다.

4.3퍼센트의 관세철폐는 가격격차를 좁히는 데 적잖은 힘이 된다. 특히 중국 등이 따라올 수 없는 기능성 고가제품군에서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작은 가격변화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는 소형 바이어들의 관심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율이 6.7퍼센트인 카매트도 미국시장 진출이 보다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나 멕시코의 저가제품과 가격 차이를 단번에 극복하기는 어렵지만 품질은 인정받고 있어 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 있다. 현지 바이어들은 가격이 아니라 기술향상을 통한 품질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美국방성 등 리튬1차전지 정부조달도 주목받아

기계산업에서는 공작기계(머시닝센터)·플라스틱사출금형·밸브·볼베어링·철주물 피팅제품·펌프 등 6개 품목이, 전기전자 산업에서는 풍력발전세트·헤어 플랫 아이언·전기제어판·터치스크린 모니터 등 4개 품목이 유망상품으로 선정됐다.

볼베어링 품목은 9.0퍼센트의 고관세가 철폐된다는 것이 기대를 모았다. 이 품목은 현재 가격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비록 10년 균등철폐지만 한국산 제품의 점유율이 확대되는 데 적잖은 힘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터치스크린 모니터는 수요가 증가하는 품목이다. 비용절감을 위해 셀프 계산대나 키오스크가 빠르게 보급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이나 멕시코 등 저가제품보다는 일본산 제품 대비 가격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한·미FTA 중소기업 35대 수출유망상품

산업	美 평균 관세율	유망상품	미국 측 양허 결과
자동차부품(9개)	2.5%	볼트·너트, 자동차공조용 부품, 냉간단조부품, 풀리, 덕타일주물제품, 자동차용 전기배선장치, 브레이크패드, 에어백, 가스킷과 실	힌지와 베어링제품(10년 철폐)을 제외한 나머지 부품은 즉시 철폐
섬유(7개)	10.1%	폴리에스터 섬유사, 여성용 드레스, 인조섬유 파일편직물, 양말, 면섬유 유아·아동용 의류 및 액세서리, 폴리에트터 단섬유직물, 카매트	• 얀포워드 규정이 원칙이나 리넨, 여성재킷, 남성셔츠 등은 예외 • 우리 주력 생산품목인 동시에 미국의 관세율이 높은 화섬제품(25~32%) 중심으로 관세가 즉시 철폐
기계(6개)	1.2%	공작기계(머시닝센터), 플라스틱사출금형, 밸브, 볼베어링, 철주물 피팅 제품, 펌프	베어링, 건조기 등 32개 품목은 장기 유예 후 관세 철폐
전기전자(4개)	2.2%	풍력발전세트, 헤어 플랫 아이언, 전기제어판, 터치스크린 모니터	경쟁력 확보가 필요한 분야(세탁기, 전자레인지 등 일부 가전제품)를 제외하고 즉시 철폐
석유화학(4개)	2.8%	폴리스티렌, 비접착성 판·시트·필름, 에폭시수지, 아크릴 폼 테이프	범용제품(폴리스티렌 등) 위주로 대미 수출이 확대될 전망
기타(1개)	–	광섬유케이블	–
정부조달(4개)	–	공구 절삭기, 문서세단기, 리튬2차전지, 전자칠판(태블릿모니터)	• 연방정부 상품서비스 양허하한선 인하:20만 달러 10만 달러 • 입찰 낙찰 과정에서 미국 내 조달실적 제출요구 금지

자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석유화학 산업에서는 에폭시수지가 큰 기대를 모은다. 접착력이 좋은 에폭시수지는 항공기, 자동차, 건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며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미국 경기의 회복과 함께 에폭시수지 시장도 회복 추세에 있다. 현재 에폭시수지 시장은 무관세인 캐나다 업체가 1위로 독주하고 대만과 우리나라가 2위를 놓고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현행 6.1퍼센트인 관세가 즉시 철폐되면 대만을 앞지를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조달 산업에서는 리튬1차전지가 주목받고 있다. 미 국방부의 수요가 많아지고 있지만 공급이 부족한 상태여서 성장성이 크다. 국내 중소기업들은 한국 군부대에 리튬1차전지를 공급하는 것은 물론 해외에도 수출하고 있어 기술력은 충분한 것으로 파악된다. 미국 업체와 파트너십을 맺는다면 시장 진출이 좀 더 용이할 것으로 분석된다. G

글·변형주 기자

농수산업 경쟁력 강화·미래 대비에 역점

FTA 대응에 1조8천여억원 배정… 수급안정 예산도 14퍼센트 늘려

농림수산식품부는 15조4천1백6억원의 2012년 예산을 편성했다. 올해보다 3.7퍼센트, 5천4백62억원 늘어난 규모다. FTA 등 시장 개방에 대응하는 경쟁력 강화, 물가와 수급 안정, 재해 대비, 미래 대비 투자 등에 중점을 두었다. 사업타당성 검토와 유사사업 통폐합을 통해 내실을 다졌다는 설명이다.

우리나라의 농수산업은 큰 전환기를 맞고 있다. FTA 등 시장 개방에 따라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고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예상치 못한 재해에 시달리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2012년 농림수산식품부의 예산안은 우리 농수산업이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당국의 고민이 담겨 있다. 농수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같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투자에 상대적으로 많은 예산을 배정했다.

FTA 환경에 대비한 예산을 크게 늘렸다. 올해 1조6천1백22억원에서 1조8천5백94억원으로 15.3퍼센트 증가했다. 전체 평균 증가율 3.7퍼센트보다 4배 이상 높은 수치다. FTA에 대한 대책은 크게 두 방향이다. 단기적으로는 직접적인 피해를 보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경쟁력을 향상시켜 해외 농수산물과 당당히 겨룰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다.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우선 축산, 원예, 과수 등의 시설 현대화를 한층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2천4백50억원에서 6천51억원으로 관련 예산을 크게 늘렸다. 노후화한 시설을 전문화, 현대화해 부가가치를 높이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축산·원예·과수 등 시설현대화 적극 지원

농어가의 안정적인 소득을 위해 농수산물의 물가와 수급안정을 위한 예산도 1조2천5백38억원에서 1조4천3백40억원으로 14.4퍼센트 증액했다. 먼저 배추 등 노지채소의 계약재배를 올해 전체 생산량의 15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늘리기로 했다.

계약재배란 미리 정해진 가격에 전량 수매한다는 조건으로 계약한 후 농사를 짓는 것이다. 농민 입장에선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고 정부로서는 수급을 안정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농수산물의 비축량도 늘리기로 했다. 콩, 양념채소, 오징어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품목의 수급을 안정화하기 위해서다. 콩의 경우 올해 23만5천 톤에서 26만3천 톤으로 비축량이 12퍼센트 정도 많아진다. 축산물과 수매지원 예산도 확대하기로 했다. 물가와 수급의 안정을 위해서다.

자연재해와 가축질병 등 위기관리 예산도 크게 증액됐다. 올해 9천6백83억원에서 1조2천3백8억원으로 27.1퍼센트 불어났다. 수리시설과 배수시설 등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기반시설 개선, 농어업재해보험 확충, 가축질병관리 등 축산업선진화 등이 주요사업이다.

농어업재해보험은 말 그대로 농어업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전해 주는 제도다. 태풍, 우박, 동상해 등 이상기온으로 수확량이 현저히 감소해 발생한 피해를 보상해 농어가의 소득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정부는 그동안 농어업재해보험을 꾸준히 확대해 왔다. 2001년 사과, 배, 소, 돼지, 말 등 5개에 불과했던 대상품목이 현재 농작물 30개, 가축 15개, 양식수산물 5개 등 50개로 확대됐다. 내년에는 여기에 11개를 더해 61개 품목에 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농수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예산이 크게 늘었다. 수산업의 경우 국가어항 기반 확충, 노후어선 현대화 등 연근해 어업의 경쟁력 향상을 지원할 예정이다.

상승세 이어가는 농식품 수출 지원도 강화

고령 농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농지연금 예산도 크게 증액했다. 농지연금이란 65세 이상 고령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매월 일정액의 생활자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농지연금에 가입한 후에도 경작을 계속하거나 임대를 할 수 있어 기존 소득에 추가 소득을 얻을 수도 있다. 당초 15억원에 47억원의 추가 예산을 편성했을 정도로 호응이 높다. 정부는 2012년 1백90억원의 예산을 배정해 농지연금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농식품 산업의 미래성장동력을 확충하는 데에도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식품과 외식, 가공업체에 융자자금 지원 확대, 국가식품산업 클러스터 등 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업체 원료 구매자금 지원 등을 통해 식품산업의 육성과 농식품의 수출을 확대할 예정이다.

수산업에 대한 지원도 늘린다. 국가어항 기반 확충, 노후어선 현대화 등 연근해 원양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친환경·양식어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2012년 신규사업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12년 예산안	비고
합 계	197,985	
Golden Seed 프로젝트(R&D)	2,300	전략종자 개발 및 민간종자산업 기반구축 지원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지원	900	양잠산물 시범단지 조성, 홍보촉진 및 기술교육 지원
간척농지 활용지원	4,944	간척농지를 활용한 농업단지 조성을 위해 전기시설 등 기반조성 지원
일반보리 매입	3,904	보리 계약재배 매입자금 지원
농축산물 해상물류단지 조성	2,415	평택항에 해상물류단지 조성 지원
거점 산지화훼유통센터 건립	755	수집, 보관, 배송 등의 기능을 가진 화훼전용 유통센터 조성
농식품유통교육 강화지원	2,000	유통·식품 교육시설 증·개축 지원
우수외식업지구 육성	1,200	우수 외식업지구 경쟁력 강화 지원
가축질병대응기술 개발(R&D)	4,000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 국가 재난형 가축질병 대응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축산관련종사자 교육	2,209	축산농가 등 관련 종사자 교육비용 지원
자유무역이행지원센터 운영	985	FTA 이행에 필요한 피해 영향분석 및 농어업인 상담 운영지원
수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FPC)	7,200	집하·선별·규격포장·세척 및 공동배송 등 다기능 수산물 거점유통센터 지원
굴패각자원화시설 지원	2,000	굴패각 자원화시설 설치 비용지원
해양생태계서식처 기능개선 복원	1,000	해양생태계 서식처 기능개선 복원 지원
함께하는우리농어촌운동	1,500	농어촌 활력 창출을 위한 재능뱅크 관리·운영, 대국민 홍보를 위한 지원
도시농업 활성화	200	도시농업박람회 지원
농협사업구조 개편 2차보전	150,000	농협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소요비용 2차보전 지원
가거도항 복구	10,473	태풍 '무이파'에 의한 피해 복구지원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우리나라의 농림수산식품 수출은 최근 들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역대 신기록을 연이어 경신하고 있다. 지난 10월 현재 농림수산식품 수출은 59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7.2퍼센트 증가해 역대 신기록인 지난해 기록을 이미 넘어섰다. 중국, 아세안, 대만 등에서 특히 증가세가 강하다. 품목으로는 김, 오징어, 파프리카, 딸기, 토마토, 백합 등이 호조를 보이고 있다.

간척지 개발 등 농업 생산기반 관리를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 영산강 하굿둑 구조개선, 저수지 둑 높이기, 다목적용수개발 등을 통해 안정적인 용수를 확보하고 새만금 내부개발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G

글·변형주 기자

핫이슈

지난 12일 제주도가 세계 7대 자연경관으로 선정되었다. 발표되는 순간 정운찬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범추진위원회 위원장과 우근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등 관계자들이 환호하고 있다.

‘제주의 푸른 밤’을 전 세계의 ‘푸른 밤’으로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후속 활동… 해외 네트워크 통해 전략적 홍보

지난 11월 12일 스위스에 있는 ‘뉴 세븐 원더스’ 재단은 제주도를 비롯한 7개 지역을 세계 7대 자연경관으로 선정했다. 이로써 제주도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유네스코 3관왕에 이어 또 하나의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하지만 이제부터 시작이다. 제주도를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만들기 위해 어떤 후속대책이 준비되고 있는지 알아봤다.

이젠 ‘제주도의 푸른 밤’을 세계인이 즐길 차례다. 제주도는 이번 세계 7대 자연경관에 선정되면서 유네스코의 세계자연유산 등재, 세계지질공원 인증, 생물권 보전지역 지정 등 자연환경 분야 3관왕과 함께 또 하나의 타이틀을 보유하게 되었다.

유네스코 3관왕에 이어 세계 7대 경관에 선정된 곳은 전 세계에서 제주도뿐이다. 이로써 제주도는 세계적인 자연명소와 관광명소로서의 가치를 재확인하게 되었다.

올해 제주도를 여행한 관광객의 추이를 살펴보면 9월 현재 관광객은 7백58만5천여 명으로 사상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하지만 외국인의 비중은 11퍼센트로 88만4천여 명에 불과하다. 제주도 관광객 10명 중 외국인은 고작 1명인 실정이다.

제주도가 국제 관광지의 반열에 오르기 위해서는 외국인 비중을 30퍼센트까지 끌어올려야 한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판단이다. 이제 제주도가 세계 7대 자연경관에 선정됨으로써 이 같은 목표를 초과 달성할 가능성이 커졌다.

연간 최대 1조2천여억원 지역경제 파급효과

제주발전연구원은 선정 이후 연간 관광객이 외국인은 최대 73.6퍼센트, 내국인은 연간 8.5퍼센트 증가해 연간 6천4백억원에서 최대 1조2천여억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생길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중형차 5만 대를 수출하는 효과와 맞먹는다. 바야흐로 외국관광객 1천만명 시대의 첫발을 내디디게 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세계적 수준의 자연과학 관련 브랜드를 통합해 세계인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보다 강력한 브랜드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를 위해 정부와 제주도는 다양한 후속조치를 준비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세계 7대 자연경관’이라는 브랜드 효과를 최대한 활용해 해외홍보를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해외문화원,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 등 문화체육관광부의 해외 네트워크를 통한 전략적 홍보로 제주도의 해외 인지도를 높이고 구체적인 관광상품에 대한 광고도 강화한다.

특히 내년에 열리는 여수엑스포를 비롯해 영암 F1, 제주 세계자연보전총회 등을 제주도 관광 상품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거둔다는 전략이다.

‘한국방문의 해’의 마지막인 내년엔 제주도 관광홍보를 최우선 목표로 세워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주요사업인 코리아그랜드세일, 고품격 관광 상품 홍보 등에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효과를 십분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방문의 해’ 특별이벤트 중의 하나인 ‘올레길 축제’의 해외마케팅을 보다 강화한다.

전세기 운항 중국 편중 벗어나 동남아로 확대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도 특별법에 특례조항을 신설하고 제주도를 국가브랜드화하여 국내외에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념 상징물을 설치하고 ‘세계 7대 자연경관 보전·활용 종합계획’을 마련해 내년부터 3년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단순 관광산업에서 글로벌 관광목적지로 육성하고 회의, 전시, 쇼핑, 휴양 등 MICE산업(기업회의, 포상관광, 컨벤션, 전시 등)의 중심지로 키워나간다는 계획이다. 부산, 목포, 거제 등 제주와 인접한 지역과 네트워크를 긴밀히 하여 보다 넓은 지역관광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계획도 추진하고 있다.

세계 7대 자연경관으로 선정된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기념관 건립도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제주관광공사는 제주에 가칭 ‘제주-세계7대자연경관기념관’을 건립, 대한민국을 대표할 상징 건물로 만들어 세계적인 관광지로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민간 부문에서도 후속책을 마련하기 위해 분주하다. 여행업계는 제주도 전세기 증편과 제주도 관광 상품을 특화하는 등의 조치에 나섰다. 중국에 편중되었던 전세기의 비중을 대만, 태국, 방콕 등 동남아시아 쪽으로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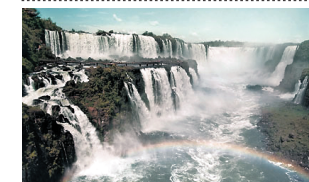
숙박업계도 분주해지기는 마찬가지. 제주도에 집중된 호텔 및 펜션업계는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과 관련한 이벤트를 마련하는 등 홍보활동에 나섰다. 하지만 한편으론 관광객 수에 비해 부족한 객실과 식당 등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숙박업계는 “제주도가 세계자연경관으로 선정된 만큼 이제는 국가적으로 시설 확충에 신경 써야 더욱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글·손수원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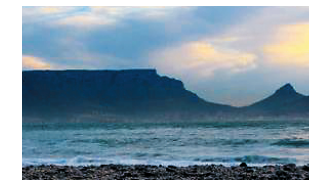
세계 7대 자연경관

제주도 (대한민국)
1백80만년 전부터 1천년 전까지 화산활동으로 형성된 섬이다. 거대한 분화구를 가진 한라산과 곳곳의 오름, 폭포 등 천혜의 자연경관을 그대로 볼 수 있다.

하롱베이 (베트남)
면적 1천5백53제곱킬로미터, 해안선 1백20킬로미터 1천9백70여 개 기암괴석이 볼거리.

이구아수폭포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접경지역에 있는 너비 4.5킬로미터, 평균 낙차 70미터 폭포. 너비와 낙차가 나이아가라폭포보다 큼.

아마존 (브라질)
길이 7천62킬로미터의 세계에서 가장 긴 강. 지구상에 남아 있는 열대우림의 절반 이상 차지.

코모도 국립공원 (인도네시아)
발리섬 동쪽 소(小)순다 열도의 코모도섬·파탈섬·린차섬과 주변 산호초 해역으로 이뤄진 2천2백제곱킬로미터의 자연공원.

푸에르토 프린세사 지하강 국립공원 (필리핀)
길이 8킬로미터 지하강. 세인트폴동굴이라고도 불림. 동굴 내부 큰 광장은 폭 1백20미터, 높이 60미터.

테이블마운틴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의 명소. 해발 1,086미터의 산봉우리가 탁자 모양처럼 평평해 이름 붙여졌다. 멸종 위기에 있는 수많은 희귀종이 서식해 ‘노아의 방주’로 불린다.

11월 16일 상주보 개방행사에 맞춰 식전 행사로 열린 자전거 퍼레이드. 상주시 자전거연합회원 1백50명과 경기도 여주에서 출발해 4대강자전거길을 달려온 송파구 자전거연합회원 50명이 참가해 화려한 은륜행진을 펼쳤다.

상주보 개방… "이젠 봄가뭄 걱정 없겠네요"

3개의 보 기둥 위를 5겹 지붕으로 장식… '五福洞설화' 반영

자전거와 곶감으로 유명한 경북 상주에서 낙동강살리기 사업으로 지어진 상주보 개방행사가 열렸다. 낙동강 상류지역은 상습적으로 봄가뭄으로 피해를 입는 곳이다. 상주보는 인근지역에 필요한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주변의 아름다운 경관과 풍부한 문화유산이 어우러져 오복(五福)을 가져다주는 다기능 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낙동강 새물결 맞이, 상주보 개방행사'가 11월 16일 개최됐다. 이날 오후 2시 경북 상주시 중동면 오상리에서 열린 공식 개방행사에는 권도엽 국토해양부장관, 이삼걸 행정안전부차관, 김관용 경상북도지사, 성윤환 국회의원, 성백영 상주시장, 그리고 지역주민 등 3천여 명이 참석했다.

식전행사로는 국민체육센터를 출발해 상주보에 이르는 10킬로미터의 자전거 퍼레이드, 신명놀이패 공연과 자전거묘기 시연, 전통무용 공연 등이 펼쳐졌다. 본행사에서는 전통무용단의 부채춤 공연, 그리고 상주보 개방을 축하하는 세리머니가 이어졌다. 국악 장단에 맞춘 3천여 시민의 함성과 뱃노래 합창의 세리머니는 낙동강 7백리의 첫 물길을 시민과 함께 연다는 의미를 담았다.

11월 16일 지역주민 등 3천여명 참석 개방행사

공식 개방행사가 열린 중동면 오상리와 강 건너편 도남동을 연결하고 있는 상주보는 3개의 보 기둥에 거대한 자전거를 새겨 넣은 문양이 인상적이다. 상주보는 보 기둥 위를 장식한 '5겹' 지붕에서 엿볼 수 있듯이 디자인 콘셉트를 '앤드락(&樂)'이란 5가지 즐거움을 주제로 잡았다. 이는 상주 지역에 전래되는 오복동설화(五福洞說話)를 반영한 것이다.

상주보 통합관리센터 옆에 자리한 죽암정.

상주보는 총길이 3백35미터, 높이 11미터에 이른다. 상주보 좌안으로 수문이 오르내리는 승강식 가동보(1백5미터)가 배치되어 있으며, 고정보(2백25미터) 구간에도 기울기를 조절해 물을 내보내는 전도식 가동보(45미터)를 갖추고 있어 두 가지 형태의 가동보 수문을 가진 독특한 형식의 보다.

상주보의 저수용량은 2천8백70만톤 규모. 좌안의 가동보 옆으로 1천5백킬로와트급 소수력발전소 2기가 설치돼 연간 1천5백35만메가와트아워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 이는 3천여 가구(주택 기준)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

저수용량 2천8백70만톤… 소수력발전소 2기 설치

무엇보다 상주보는 주변 지역과 연계해 관광 시너지 효과가 클 전망이다. 상주보 주변 5킬로미터 안쪽으로 4대강 중 경관이 가장 아름다운 낙동강 제1경인 경천대와 드라마 〈상도〉 촬영지, 그리고 상주박물관, 상주자전거박물관, 도남서원 등이 자리 잡고 있다.

또 낙동강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상주보 위쪽 하중도를 생태공원으로 정비해 다리로 연결했으며, 어도 2곳도 추가했다. 상주에는 국립 낙동강생물자원관, 국립 농업생명미래관도 곧 들어선다.

이날 행사에 자원봉사자로 참가한 상주시 낙동면 의용소방대장 이성희(48)씨는 "지난 수십년간 강물이 줄어 벼농사를 짓는 상주지역 농민들이 상습적으로 가뭄 피해를 입어 왔다"며 "이제 상주보 건설로 인해 물이 풍부해져 가뭄 걱정을 덜고 관광지로서 상주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G

글과 사진·박경아 기자

강순호 소장 인터뷰

"상주보가 유속 늦춰 재퇴적 논란에 종지부"

"승강식 가동보와 전도식 가동보를 함께 설치한 것은 홍수위 저감 효과를 한층 높이고 관리 수위조절에 용이해 홍수에 더욱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주보 건설을 담당한 강순호(58) 현장소장은 상주보가 흔치 않게 두 가지 형태의 수문을 함께 갖춘 까닭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강 소장은 상주보가 낙동강 상류 지역에 위치하다 보니 강바닥 경사도가 심하고 유속이 빨라 공사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그간 고충을 털어놓았다.

"낙동강 하류쪽 함안 지역쯤 하상경사도가 1만2천분의 1 정도라면 상주보 구간은 2천분의 1 정도로 경사가 심합니다. 그렇다 보니 공사를 위해 강물을 막으려고 쌓은 가물막이가 여러 차례 무너지는 어려움도 있었죠."

강 소장은 지난해에는 비가 적게 와서 공사진행에 큰 문제가 없었으나 올해에는 봄부터 갑작스레 비가 많이 쏟아져 어려움이 많았다"고 전했다.

강 소장은 "지난 6월 상주보 좌안 아래쪽 제방이 일부 유실됐던 것도 유속이 빠른 상황에서 공사는 덜 끝나고, 갑작스레 폭우가 쏟아져 벌어진 일이었다"고 설명했다. 당시 일부 유실됐던 제방은 지금 단단히 마무리되어 있다.

"우리 같은 현장사람들이야 일에만 전념하면 어떻게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지요. 현장에서의 어려움보다 힘들었던 게, 국책사업이다 보니 많은 분들이 시선이 일시에 쏠린 점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공사 현장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더 확대되어 조명되는 바람에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큰 부담을 갖고 일을 했다는 것이다.

항만공사 경험도 있다는 강 소장은 "항만공사의 경우 태풍만 한 번 지나가면 말짱 도루묵이 되곤 한다"며 "최근 지적되어 온 재퇴적 문제도 준설로 강바닥이 낮아진 상태에서 상주보가 완공되지 않아 유속을 늦추는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긴 과도기적 현상"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그간 4대강살리기 사업을 지나치게 서두른 게 아니냐는 일부의 지적도 있었지만 하천공사의 특성상 기상변화에 영향을 적게 받도록 최대한 빨리 공사를 끝내야 했다고 강 소장은 덧붙였다.

"이제 상주보가 완공되어 제 기능을 하게 됐으니 더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개방행사일 현재 상주보 전체 공정은 97퍼센트가 끝났다. 강 소장은 "남은 공사는 수변공원 조성"이라며 "오래도록 상주시민들이 찾아와 즐길 수 있도록 최대한 자연적인 생태공원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집이 서울인 강 소장은 여느 4대강살리기 현장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곧 집으로 돌아간다. "그동안 집에서 내놓았는데, 이제 들어가는 게 걱정이라니까요. 하하."

호국보훈 의식은 굳건한 안보관의 바탕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北의 도발 가능성 등 안보실상 정확히 알아야"

지난해 11월 23일, 북한은 우리 주민이 평화롭게 살고 있는 연평도를 겨냥해 무려 1백70여 발의 포탄을 퍼부었다. 포격은 우리 장병 두 명과 군부대 공사 중이던 민간인 두 명의 귀중한 생명을 앗아가고 말았다. 천안함 피격이 있은 지 1년도 되지 않아 다시 발생한 북한의 만행이었다.

되돌아보면 북한의 도발은 연평도 포격도발뿐만이 아니다. 2002년 6월 29일 제2연평해전으로 우리 장병 6명이 희생되었고, 지난해 3월 26일에는 우리 장병 46명이 희생되었다. 정전협정을 맺은 지 벌써 58년이 지났지만, 북한은 여전히 기습적인 도발을 통해 우리 내부의 갈등과 혼란을 야기하는 전략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북한의 대남전략에 흔들리지 않고 대한민국의 안위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의 굳건한 호국보훈 의식이 필요하다. 국민들이 나라를 위한 희생을 영예롭게 여기고 그들을 진심으로 존경할 때, 대한민국에 대해 자긍심을 갖고 어떠한 위기에도 반드시 지켜 내겠다는 의지를 다질 수 있을 것이다. 보훈은 곧 호국이자 튼튼한 국가안보의 초석이다.

젊은이들 안보의식 많이 깨어나 다행

그러나 상당수의 우리 국민, 특히 젊은 세대는 안보실상에 대해 무관심하고, 대한민국의 호국 역사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가관과 안보관은 다른 경제적인 논리에 밀리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는 국민의 마음속에 보훈의식이 제대로 자리 잡지 못했기 때문이다.

보훈의식의 약화는 안보의식의 약화로 연결되고, 결국 국민들은 국가에 대해 자긍심을 가질 수 없게 된다. 북한은 내년에 통일강성대국의 문을 열겠다고 공언하고, 적화통일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제2, 제3의 천안함 피격이나 연평도 포격 같은 무력도발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제 우리는 안보 실상을 정확히 인지하고, 이제라도 젊은 세대에게 균형 잡힌 호국보훈 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다행스러운 일은 연평도 포격도발을 계기로 우리 젊은 세대의 안보의식이 많이 깨어났다는 것이다. 국민들, 특히 젊은 세대의 마음속에 건강한 보훈의식이 싹트고 사회 전반에 보훈이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보훈의 의미가 이전과 달라져야 한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23일 연평도에 1백70여 발의 폭탄을 퍼붓는 무력 도발을 감행했다. 폭격을 맞아 처참히 파괴된 피해 현장모습.

지금까지 보훈의 영역은 국가유공자들과 그 유족에 대한 보상이 중심이 되어 왔다. 그러나 이제는 물질적이고 사후적인 보상을 기본 바탕으로 하면서 정신을 선양하는 선제적인 보훈을 펴, 나라 위한 희생이 헛되지 않다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각인시켜야 할 때이다.

굳건한 안보의식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때, 보훈의식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말이 가슴 깊이 와 닿는다. 만약 국가관과 안보관을 간과한 결과로 대한민국이 훗날 위기에 처하게 되면, 이는 과거 목숨을 바쳐 가며 대한민국을 지켜 낸 수많은 호국영령들의 소중한 희생을 헛되이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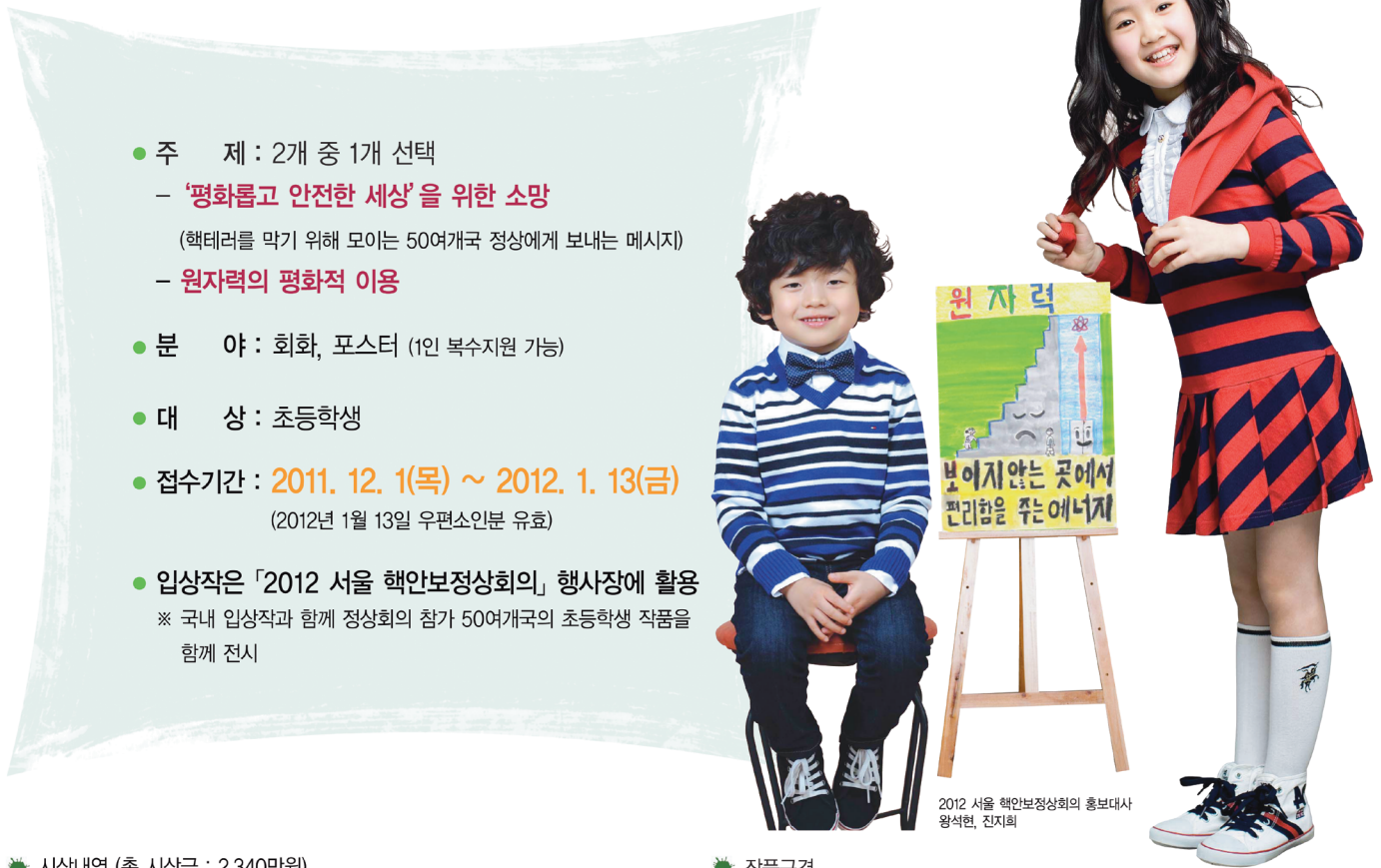
이제 대한민국을 위해 국민, 특히 젊은이들이 나서야 한다. 방관자의 입장이 아니라 자신들의 판단에 국가의 운명이 걸려 있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지금의 안보현실을 정확히 직시하는 것이야말로 지금 우리 국민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시급한 일이라고 할 것이다. G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기념

국제 어린이 평화 미술전

『International Children's Peace Art Festival』 in celebration of 2012 Seoul Nuclear Security Summit

- 주 제 : 2개 중 1개 선택
  - '평화롭고 안전한 세상'을 위한 소망
    (핵테러를 막기 위해 모이는 50여개국 정상에게 보내는 메시지)
  -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 분 야 : 회화, 포스터 (1인 복수지원 가능)
- 대 상 : 초등학생
- 접수기간 : 2011. 12. 1(목) ~ 2012. 1. 13(금)
  (2012년 1월 13일 우편소인분 유효)
- 입상작은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행사장에 활용
  ※ 국내 입상작과 함께 정상회의 참가 50여개국의 초등학생 작품을 함께 전시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홍보대사
왕석현, 진지희

시상내역 (총 시상금 : 2,340만원)

- 시상인원 : 학생 138명, 지도교사 2명, 단체상 2개 학교

분야	입상구분	인원	접수방법
회화 · 포스터	대상	각 1명	핵안보정상회의준비기획단장상 (장학금 100만원) (외교통상부장관)
	최우수상	각 3명	교육과학기술부장관상 (장학금 70만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장학금 70만원) 지식경제부장관상 (장학금 70만원)
	우수상	각 5명	재단이사장상 (장학금 50만원)
	장려상	각 20명	재단이사장상 (장학금 20만원)
	입선	각 40명	재단이사장상 (도서상품권 1만원)
	지도교사상	각 1명	교육과학기술부장관상 (연구비 70만원)
	단체상	각 1개교	재단이사장상 (100만원 상당의 학교용품)

※ 지도교사상 : 작품 수량 및 수상작의 입상 순위를 고려하여 수여
※ 단체상 : 다수 입상자를 배출한 학교에 수여

특 전

- 장려상 이상 입상자 국내 원자력발전소 1박2일 견학 / 보호자 1명 동반 (선착순 신청)
- 참가학생 및 교사에게 기념품 증정

응모방법

- 우편 : 한국원자력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참가신청서를 작성 후 출력하여 작품뒷면에 부착하여 제출

작품규격

- 8절지 (272mm x 394mm)
- 모든 재료 사용 가능, 색 제한 없음
- 한 번 접지하여 대봉투에 넣어 제출

※ 작품 제출 시 지도받은 학생은 지도 교사명(소속학교 교사만 해당)을 반드시 기입

입상자 발표

2012. 1. 31(화) 재단 홈페이지 공고, 입상자 e-mail 통보

접수처

(우)153-820 서울특별시 금천구 남부순환로 1418번지 (독산동 901-1)
국제 어린이 평화 미술전 담당자앞

문의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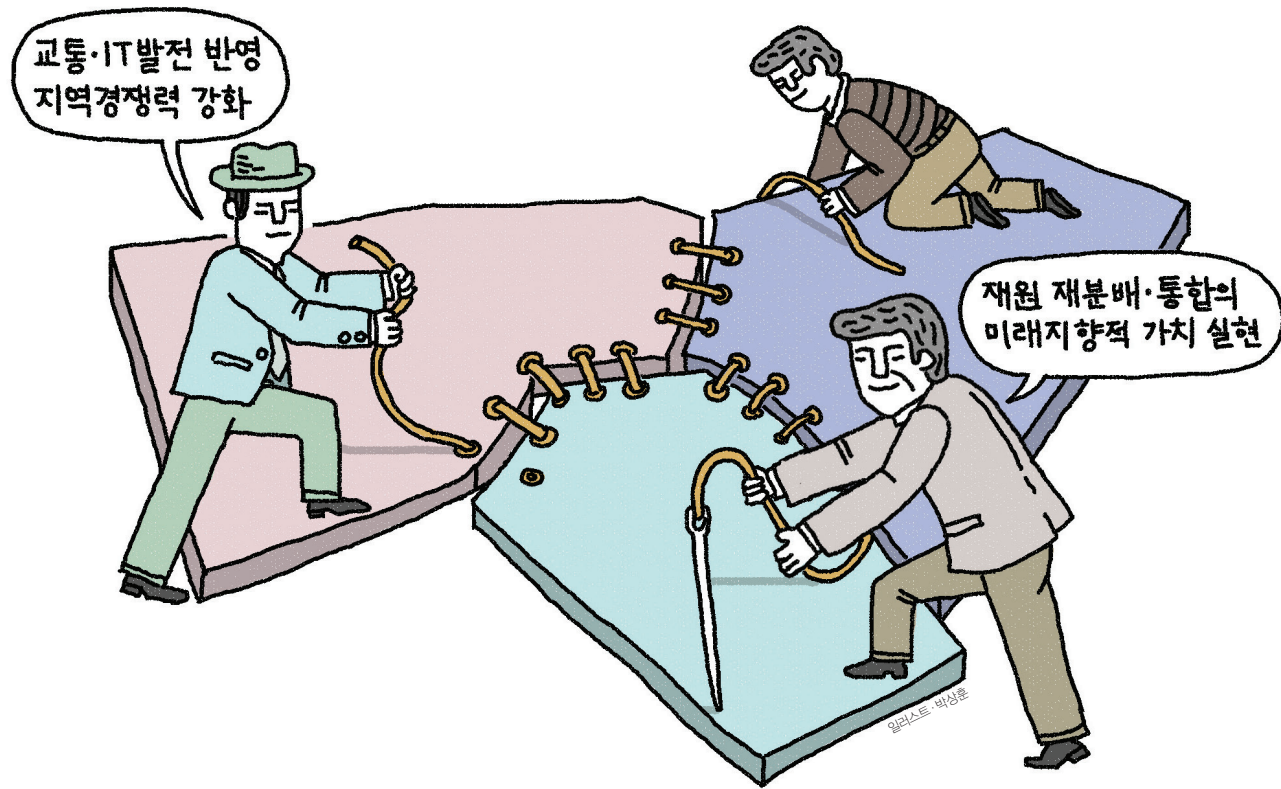
☎ 02) 2191-1451~2 홈페이지 : http://www.konepa.or.kr

기 타

- 직접 제작한 미발표 작품으로 창작품이어야 함
- 모작품임이 발견된 경우 입상 취소
- 우수작품이 없을 경우 해당부문 수상자가 나오지 않을 수 있음
- 저작권 : 한국원자력문화재단 귀속

주최/주관 :

후원 :

일러스트·박상훈

교통·IT발전 반영… 지역경쟁력 더 강하게

주민들의 자율적 판단으로 재원 재분배·통합의 미래지향적 가치 실현

지난 11월 10일 강원대 인문사회과학연구소 주최의 '행정구역 개편과 강원 남부권 발전방안 구상' 심포지엄에는 김상찬 삼척시의장, 김진동 전 동해시장, 동해·태백시 공무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뜨거운 열기를 실감케 했다. 최근 들어 강원도를 비롯해 전국 지자체별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지난 9월 7일 대통령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이하 개편추진위)가 '시·군·구 통합기준'을 확정 발표했다. 통합기준은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주요 6대 과제 중 핵심과제인 '시·군·구 통합'을 위한 첫번째 절차인 것이다.

그렇다면 정부는 왜 지방행정체제를 개편하려는 것일까. 1960년대 이후 산업화와 도시화를 거친 우리나라는 1990년대 이후 초고속 정보통신이 발달하고 고속철도가 개통되는 등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엄청난 변화를 겪었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레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특히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학계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국가·지방행정의 기본이 되는 지방행정체제의 개편에 대해 논의가 일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1994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도시지역(시)과 농촌지역(군)을 통합한 도농(都農) 통합시가 탄생했다. 그러나 이것은 지방행정체제 전반에 대한 개편이라기보다 도농통합적 행정구역으로 일부 전환한 것에 불과했다.

지역특성 반영한 '시·군·구 통합기준' 제시

본격적인 개편논의는 제17대 국회에서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서 시작됐다. 현 18대 국회에 들어서면서 구체적인 개편 방식과 절차에 대해 여야가 합의했고 '지방행정체제개편 특위'를 재구성하게 됐다.

이를 계기로 지난해 10월 1일 국회는 여야 합의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시행했다. 특별법은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 지방의 역량강화, 국가경쟁력 제고를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목적으로 명시하고 추진과제로 ①특별시 및 광역시의 개편 ②도(道)의 지위 및 기능 재정립 ③시·군·구(市郡區)의 개편 ④읍·면·동(邑面洞)의 주민자치 ⑤통합 지방자치단체 및 대도시에 대한 특례 ⑥지방분권의 강화 등 6대 과제를 제시했다.

강현욱 개편추진위원장은 "영국의 경우 스코틀랜드 지방행정체제 개편 후 획기적인 분권(分權)을 추진한 전례가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진정한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국가와 지방 간 기능과 재원의 재배분과 통합이라는 미래지향적 가치가 실현될 때 획기적 분권은 물론 지방의 경쟁력 강화가 이뤄질 수 있다"고 했다.

개편추진위가 발표한 '시·군·구 통합기준'에 따르면 주민의 자율적 의사를 존중하고 특별법의 취지를 반영하며 지역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괄적 기준을 제시했다.

통합에 의한 세금 등 불이익 없도록 제도화

통합을 할 경우 중앙정부가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개편추진위는 시·군·구 통합기준과 함께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례'와 '인구 50만 또는 1백만명 이상의 대도시에 대한 특례'를 제시했다.

정부는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특례를 보장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해 특별법과 개별법을 통해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을 보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통합지역의 주민은 통합으로 인해 새로운 부담이 추가되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특히 각종 세금으로 인한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제도화하고 있다.

또한 통합으로 인해 지자체 인구가 50만 또는 1백만명 이상이 되는 대도시가 되면, 필요한 조직을 갖추고 광역사무에 대한 권한을 이양해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을 확대하고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편추진위에 따르면 시·군·구 통합기준 발표 이후 통합논의가 있어 왔던 지역은 그 논의가 더 활발해졌고 그렇지 않은 지역도 하나둘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번 시·군·구 통합은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대상을 정해 추진하는 획일적·강제적 통합이 아니라 자율통합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통합논의와 결정에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은 주민의 몫이라는 것이다.

자료: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

지역에서는 통합기준과 통합 지자체에 대한 특례를 참고로 시·군·구 통합에 대한 논의를 거쳐 통합을 원하는 지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또는 주민이 원칙적으로 올해 12월말까지 개편추진위로 통합을 건의하면 된다.

'통합 창원시' 주민 57퍼센트 긍정적 반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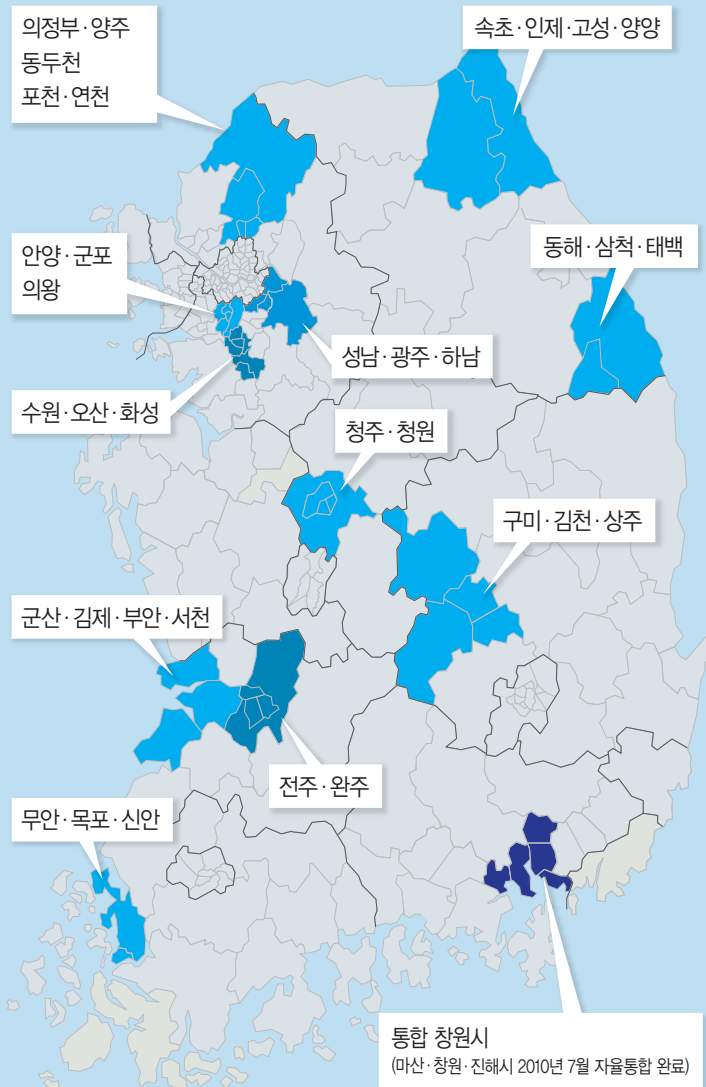
실제로 2010년 창원시, 마산시, 진해시가 통합해 출범한 통합 창원시의 경우를 보면 '주민 부담은 최소로 하고 지원은 최고로 한다'는 원칙을 적용해 주민세·화장장 사용료 등은 기존 3개 시의 최저 수준으로 하고 출산장려금·장수수당 등은 기존 혜택을 고려해 최고 수준으로 정했다.

통합 창원시에 대한 특례도 통합 당시 약속된 지원내용의 대부분이 이행됐다. 지난 5월에 통합 창원시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통합 이후의 변화에 대해 긍정적 반응이 57퍼센트에 달했고 특히 통합으로 인한 발전가능성에 대해 89퍼센트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G

글·오동룡 기자

뭉쳐야 산다… 전국 10여 곳 머리 맞대

주민투표 서명운동·심포지엄 등 인근지역 간 공감대 형성 한창

대통령 직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올해 말까지 시·군·구 통합 건의를 접수할 예정인 가운데 전국 곳곳에서 행정구역 통합논의가 다시 불붙고 있다. 이해관계에 따라 통합에 대한 찬·반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통합에 성공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대상이 되는 인근 지역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

이제는 뭉쳐야 할 때다. 현재의 자치구·군 제도는 비용 대비 낮은 효율로 행정력 낭비와 주민 불편과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것이다.

정부는 지난 2월 대통령 직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를 발족,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의 역량강화와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통합 지자체에 보조금 지원, 개발촉진지구 지정 등 '당근'을 제시하면서 통합을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주민 합의를 전제하지 않은 통합에 반대하는 목소리 역시 커지고 있다. 행정구역 통합은 각 지역의 위상과 관련된 것으로, 이해관계에 따라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구도다.

수원권

수원·화성·오산–연말까지 통합 건의할 듯

수원·화성·오산이 행정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3개 지역 시민들이 '통합추진위원회(이하 통추위)'를 구성해 주민투표를 청구하기 위한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주민투표 청구를 위해서는 투표권한을 가진 주민의 50분의 1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주민투표 청구에 필요한 서명 수는 수원시 1만7천여 명, 화성시 7천5백여 명, 오산시 3천5백여 명이다.

수원의 경우 지난 1일부터 서명을 받기 시작해 목표치에 근접한 동의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 연말까지 3개 지역 시민들의 통합건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안양권

안양·군포·의왕–지역간 찬반 엇갈려 진통 예상

안양권에서도 행정구역 통합이 추진되고 있다. 가칭 '안양권 행정구역통합 군포추진위원회'는 오는 30일까지 안양·군포·의왕시 통합에 대한 주민투표 발의 서명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은호 추진위원장은 "서명운동을 벌인 후에는 내년 2월부터 권역별 토론회를 여는 등 활동을 본격화하겠다"고 말했다. 군포에 이어 안양과 의왕에서도 조만간 민간차원의 통합추진위원회가 발족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안양권 통합은 2009년에도 추진됐으나 무산된 바 있다. 당시 안양권은 행정안전부가 통합대상으로 포함했다가 뒤늦게 국회의원 선거구 문제로 통합대상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3개 시 통합은 분리된 과거를 되찾는 것"이라며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는 안양시와는 달리 의왕시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작업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라며 반대 입장에 서 있다.

설악권

속초·양양·고성·인제–아직 의견교환 단계

설악권 통합의 대상은 속초·양양·고성·인제 등 4개 시·군이다. 분위기를 주도하는 곳은 속초 지역이다. 속초시사회단체협의회는 속초를 중심으로 주민서명을 받고 있으며 이 서명부를 연말께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속초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통합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이번 설악권 시·군 통합문제가 자칫 해당 자치단체 간 대립국면으로 치달을 우려를 낳고 있다.

양양군의회를 비롯해 양양로터리클럽, 청년회의소 등 양양지역 12개 사회단체 대표들은 '범국민 통합결사반대 투쟁위원회' 구성을 준비하고 있으며, 고성지역에서도 "속초지역 사회단체의 움직임을 수수방관할 수 없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통합반대 운동에 가세할 예정이다.

지난해 첫 자율통합시가 되면서 역사속으로 사라진 마산시의 발자취를 타임캡슐에 담는 모습. 올해도 행정 통합에 대한 논의가 전국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자율 통합 모범 사례

전국 제1호 '자율 통합시' 통합 창원시

경남 통합 창원시는 창원·마산·진해가 통합된 전국 제1호 '자율 통합시' 사례다. 2009년 정부의 행정구역 통합 추진 과정에서 전국 18개 지역 46개 시·군 중 유일하게 통합이 성사되었다. 덕분에 통합 창원시는 전국 최대 기초자치단체가 되었다.

통합 창원시는 지난 1년여 동안 미래의 성장동력 확보와 세계적인 디자인도시 창출(창원 스마트), 차별화된 해양문화공간 재창조 및 입체적인 도시공간 개발(마산 르네상스), 국제 해양중심도시 도약과 항만물류 거점도시 육성(진해 블루오션)이라는 지역 균형발전 3대 프로젝트를 추진해 왔다.

이 결과 창원시는 제14회 세계 '살기 좋은 도시대상' 은상 수상, 창원 연고의 프로야구 9구단 창단 승인, 창원도시철도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등 뚜렷한 성과를 올렸다. 이는 지차체 통합 후 행정의 모범 사례로 꼽힌다. 하지만 최근 통합시 청사 소재지 등을 둘러싼 잡음이 불거지는 등 해결해야할 문제도 여전히 남아있다.

삼척권

삼척·태백·동해·울진–통합논의 모락모락

삼척권은 삼척, 태백, 동해, 경북 울진이 시·군 통합논의를 벌이고 있다. 최근 '행정구역 개편과 강원 남부권 발전방안 구상'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서명운동에 나서는 등 통합논의가 무르익고 있다.

이에 동해지역에서는 통합에 찬성하는 위원회가 결성되는 등 통합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태백과 울진의 움직임은 아직 뚜렷하지 않은 상태다.

기타

경기북부, 충남 서남부, 서부경남 등 의견 활발

경기북부 의정부·양주·동두천도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세 지역의 11개 시민단체들은 최근 3개 시 통합을 위한 '의·양·동 통합시민연대'를 구성하고 여론조사를 거쳐 올해 말 통합 건의안을 정부에 제출토록 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충남 서천과 전북 군산, 내포 신도시를 공유한 홍성과 예산, 강원도 철원과 경기도 의정부·연천·포천, 서부 경남의 진주·사천·산청, 통영·거제·고성, 창녕·의령·합천 등도 통합을 놓고 지역주민 간 의견이 분분해 앞으로 논의 여부가 주목된다.

글·손수원 기자

강현욱 개편추진위원장

"주민이 통합의 중심… 미래를 위한 선택"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지방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국가발전을 견인하게 될 원동력으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입니다." 지난 2월 16일 출범한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강현욱 추진위원장은 "현재의 행정구역은 그간의 산업화와 교통·통신의 발달, 급속한 도시화·고령화 등 사회구조의 변화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고 했다.

하지영 기자

강현욱 추진위원장은 지난 11월 16일 인터뷰에서 "오래전부터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논의돼 왔지만 이번처럼 정부가 강한 의지를 갖고 특별법을 제정해 추진하는 것은 그만큼 기존의 행정구역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실례로 동일 생활권이지만 행정구역이 달라 통근·통학, 학군 배정, 교통요금 할증 등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고 재정자립도가 20퍼센트 이하인 시·군·구가 94개(2백28개 시·군·구 중 41퍼센트)나 되는 등 지방의 자생력이 열악하다"고 했다.

강 위원장은 "새만금 등 대규모 사업 또는 도청이전 지역 등은 지역이기주의에 따른 갈등으로 비용부담의 증가, 지역경쟁력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특별법을 제정했고 정부에서는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강한 의지를 가지고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특별법에서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2014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내년에 실시하는 총선과 대선으로 인해 위원회 활동이 지장을 받지는 않을까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은 지난 17대 국회부터 오랜 논의를 거쳐 여야가 최초로 합의해 제정한 특별법입니다. 게다가 위원회 구성은 대통령, 여야 정당, 시도지사협의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포함돼 있어요. 위원회에 부여된 6대 과제의 추진일정이 특별법에 명시돼 있고요.

행정구역 개편과제는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에서 마무리하도록 돼 있는 만큼 오히려 지금이 적기(適期)라는 의견도 많습니다. 무엇보다 특정 정파(政派)와는 무관한 우리나라의 백년대계를 수립하는 중요한 과제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강 위원장은 "행정구역 개편은 우리나라의 한 단계 도약과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더 이상, 기득권이나 소지역주의에 집착해 어렵게 얻은 기회를 잃어버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출범한 지 9개월이 지났습니다. 위원회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지난해 9월 여야 합의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됐고, 이 법에 근거해 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특별법은 특별·광역시 구·군 개편, 도의 지위와 기능 재정립, 시·군·구 통합 등 위원회에 6개 과제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내년 6월까지 시·군·구 통합방안과 특별·광역시 구·군 개편안을 짜야 하고 2013년 6월까지는 도의 지위와 기능재정립, 지방분권 강화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금껏 개편 로드맵과 시·군·구 통합기준을 마련해 공표했고 부여된 6개 과제에 대해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위해 토론회를 열고 전문적인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행정구역은 16개 시·도와 2백28개의 시·군·구가 있고 시·군·구 하부에 3천4백여 개의 읍·면·동이 있습니다. 어떻게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할 계획입니까.

"위원회에서는 구역개편을 비롯한 지방자치의 계층과 기능조정 등 종합적인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어요. 특히 시·군·구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잘못 알려져 있습니다만 시·도, 읍·면·동 등에 대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특별·광역시와 자치구의 경우 대도시 행정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편의를 위해 자치구에 대한 개편을 추진합니다. 도의 경우는 업무중복, 도의 기능 명확화를 위해 중앙·도·시군 간 사무배분을 새롭게 해 도의 기능을 재정립해 나가고, 시·군은 면적·인구 등과 역사성·동질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통합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읍·면·동은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이라는 측면을 감안해 주민자치회 구성 등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해 나갈 것이고요."

시·군·구 통합기준이 공표된 지 3개월여가 지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통합건의 활동을 추진하고 있거나 통합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지역은 어느 곳이 있습니까.

"위원회가 언론 등을 통해 파악해 본 결과 16개 지역, 41개 시·군에서 통합 논의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더군요. 구체적으로 수도권에는 통합 논의가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안양시·의왕시·군포시 등이 있습니다.

충청권에는 이미 통합에 합의한 청주시·청원군, 내년에 충남도청이 이전하는 홍성군·예산군 등이 있고요, 호남권은 전주시·완주군, 목포시·무안군과 대형 국책사업인 새만금이 건설되고 있는 군산시·김제시·부안군·서천군 등이 있습니다. 영남권에서는 진주·산청·사천 등이 있고요.

이러한 지역에서는 토론회나 공청회 등을 통해 지역발전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계속될 것이고 연말까지 자율적 판단에 따라 통합건의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럼, 이런 방식으로 행정구역을 개편했을 때 지역 주민들의 생활이나 국가적 측면에서 어떤 점이 나아진다고 보시나요.

"시·군·구 통합에 따라 주민생활이 편리해지고 지역의 경쟁력이 강화되며 행정의 효율성도 제고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이 곧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게 될 것이고요. 우선 시·군·구 통합으로 생활권과 행정권이 일치하게 돼 주민의 생활이 편리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인근에 있으나 행정구역이 달라서 사용하지 못하던 각종 행정시설과 편의시설을 사용하게 되고 교통할증이 없어지며 학군이 생활권 단위로 재조정되게 됩니다."

강 위원장은 "통합에 따라 인구·면적에 있어 시장의 규모가 경제성을 갖추게 된다"면서 "지자체는 재정적 여유가 생겨 규모가 작을 때는 할 수 없었던 대형사업을 할 수 있어 지역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또 "인구는 많으나 면적이 좁은 지역은 부지문제가 해결되고 인구는 적으나 면적이 넓은 지역은 지역발전을 위한 모티브를 갖게 된다"면서 "중복투자가 방지되고 일회성·선심성 축제의 간소화 등으로 행정의 효율을 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시·군·구 통합으로 인해 국민들의 불편이 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요.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주민불편 해소방안도 마련하셨습니까.

"좋은 지적입니다. 시·군·구가 통합되면 시·군청 등 관공서가 멀어진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세계최고 수준의 IT 선진국(인터넷·스마트폰 등)입니다. 통합 이후 청사까지의 물리적인 거리의 문제가 주민의 민원을 해결하는 데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강 위원장은 "위원회에서는 행정구역 개편과 아울러 지역주민과 직접 소통하는 읍·면·동 주민자치회 설치를 과제에 포함해 논의하고 있다"면서 "읍·면·동 단위의 주민자치를 통해 주민참여와 근린자치를 조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G

글·오동룡 기자

기획특집

베이비붐 세대 유쾌한 인생 2모작

베이비붐 세대가 누구입니까. 어려운 시절에 태어나 우리나라의 경제와 사회 발전을 이끈 견인차였습니다. 전후의 가난을 극복하고 민주화를 이뤄 냈으며 경제위기를 온몸으로 헤쳐 나온 역전의 용사들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은퇴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에 대한 열정만은 여전합니다. 이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면 우리 사회의 미래는 더욱 밝아질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 사회 최고의 숙련인력이니까요. 고령사회를 극복하는 해법도 여기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인생 2모작, 3모작의 꿈을 위한 대책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일러스트 · 유현호

퇴직 후 베이비붐 세대의 경험과 노하우를 사회적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를 통해 '밝고 역동적인 고령사회'를 구현한다는 목표다. 퇴직예정자들이 퇴직 교육을 받고 있다.

위기는 기회… 고령사회의 주체가 된다

은퇴에 의한 삶의 질 하락·숙련인력 상실 막을 다양한 정책 따라야

7백12만명에 달하는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이 시작됐다. 단순히 한 세대의 은퇴가 아니다. 우리 사회 중추가 물러나는 일이다. 하지만 위기는 곧 기회라고 했다. 베이비붐 세대를 새로운 가치창출의 주체로 활용한다면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은 오히려 우리 사회가 한층 풍요로워지는 계기가 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밝고 역동적인 고령사회'를 이루자는 목표다.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는 55세 직장인 A씨는 잠이 오지 않는다. 퇴직 후 살림이 무엇보다 걱정이다. 재산이라곤 아파트 한 채가 전부인데 목돈이 들어갈 일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 딸아이는 미혼이고 아들은 아직 대학생이다. 노모도 생존해 계신다. 연금이 나오려면 좀 더 기다려야 한다. 직장에 다닐 때도 그리 넉넉하지 않았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가슴이 답답하다. A씨는 다만 몇 년이라도 일을 더 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일을 그만두기에 55세는 너무 이르다고 그는 생각한다.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은 우리 사회 발전의 큰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 개인적으론 삶의 질 하락이 염려되고 사회적으로는 중추적인 '일꾼'들이 감소한다. 이들에 대한 현재의 대책이 향후 우리나라 고령사회를 좌우할 것이란 예측이 여기서 비롯된다.

더 많은 사람이 더 오래 일할 여건 조성

정부는 '밝고 역동적인 고령사회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에 대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더 많은 사람이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 개인 행복과 사회적 자본의 조화 촉진, 노후소득 보장 강화 및 유망산업 활성화 기반 구축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는 두 가지 측면에서 위험요인이다. 개인적으로는 삶의 질이 하락하고 사회적으로는 풍부한 경험을 가진 숙련인력을 잃게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베이비붐 세대가 더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민간부문에서 고용을 자율적으로 연장하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강화할 계획이다. 세분화된 표준 매뉴얼을 보급해 기업여건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임금피크제를 활성화한다.

고용을 연장하는 사업주에게도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50세 이상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단축해 퇴직을 준비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근로시간 단축 청구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상생형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에도 공을 들이기로 했다. 베이비붐 세대의 경험과 전문지식을 살려 사회에 활력을 더하자는 취지다. 숙련기술 인력을 발굴해 현장훈련 강사로 활용하거나 학교교육에 접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등에 참여해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는 길도 있다. 아이디어는 있지만 경험이 부족한 청년들과 함께 창업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환경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전문성 살린 다양한 사회참여 기회 확대

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베이비붐 세대는 은퇴 후 사회참여 활동을 중요하게 여긴다(49.5퍼센트). 현역 시절엔 일에 몰두했지만 은퇴 후에는 삶의 가치와 보람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싶다는 얘기다.

이를 위해 퇴직자의 전문성을 살린 다양한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먼저 사회적기업이나 사회복지시설 등을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참여자에겐 소정의 수당을 지급해 유급근로와 자원봉사가 결합된 모델을 확산시킬 계획이다. 자신의 경험과 전문지식을 유초중등 학생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여건도 조성한다.

평생학습을 할 수 있는 인프라도 확대할 예정이다. 베이비붐 세대의 교육 수요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취업역량도 높이기 위해서다. 평생학습 중심대학을 늘리고 2013년까지 광역 단위 평생교육진흥원을 설립해 지역사회 평생교육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여가와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간다.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역사회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해 문화를 통한 사회봉사와 세대 간 소통,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문화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풍요롭고 넉넉한 노후 생활의 기본 조건은 안정적인 소득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 노후설계서비스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소득공제제도를 도입해 근로자가 은퇴 후 연금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연금소득에 대한 세제도 개선할 계획이다. 연금사업자는 투자수익률을 높일 수 있도록 운용규제를 개선할 예정이다.

베이비붐 세대 퇴직 대비 주요 대책

구 분		주요 내용
오래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민간의 자율적 고용연장 뒷받침	•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원 요건 완화 •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우대 • 근로시간 단축 청구제도 도입
	취업지원 및 고령자 고용친화적 환경조성	• 50세 이상 연령차별 금지 제외 • 이직자에게 전직, 구직활동 및 퇴직교육 실시 • 50세 이상 명칭 (준)고령자에서 장년으로 변경
	상생형 일자리 지속 발굴	• 산업협력 중점교수 내년 2백20명→2천명 확대 • 산업체 우수강사 내년 3백30명→4백명 확대 • 중소기업 내 고숙련기술 현장훈련 강사로 활용
개인행복과 사회적 자본의 조화 추진	전문분야별 다양한 사회참여 기회 확대	• 베이비붐 세대 유료근로와 자원봉사 기회 확대 • 교육기부 매칭시스템 도입
	평생학습 인프라 확대	• 성인 친화형 대학 확대 • 지역사회 평생교육 활성화
	여가문화 향유 기회 확대 및 건강관리 지원	• 관광 콘텐츠 개발 • 지역 공동체 문화예술 프로그램 지속 확대
노후소득 보장강화 및 유망산업 활성화	노후 소득 보장 강화	• 퇴직소득공제 제도와 연금 소득에 대한 세제개선 • 행복노후 설계센터의 인지도 제고 홍보
	유망산업 육성기반 마련	• 항노화 산업 육성 • 고령친화용품 R&D지원 확대

노후소득 보장 강화·고령친화 산업 활성화

개인연금은 세제적격 연금 무배당 연금보험을 허용해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했다. 주택연금은 방문상담과 취급금융기관을 확대해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노후설계서비스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공단의 지사에 설치된 1백40개의 행복노후설계센터의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고령자 친화적 산업도 육성한다. 은퇴한 베이비붐 세대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다. 관련 산업에 대한 통계 기반을 구축해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R&D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고령친화형 화장품 신소재 개발과 수출지원, 규제 완화를 통해 국산화장품의 글로벌 경쟁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G

글·변형주 기자

한국폴리텍에서 기술 배운 한국석유관리원 김정규 전기반장

"자격증 따자 일자리가 바로 생기네요"

배움은 끝이 없다. 베테랑 사회인이라 해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제2인생을 위해선 또 배워야 한다. 자기만의 '주특기'를 개발하는 것이다. 새로운 무기를 장착할 수도 있고 기존 무기의 성능을 업그레이드할 수도 있다. 정부는 베이비붐 세대의 직업능력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미 많은 사람이 이 과정을 통해 재취업에 성공했다.

김정규 반장은 정년퇴직 후 별도의 직업교육을 마치고 재취업에 성공했다. 김 반장은 "돈도 좋지만 일 자체가 소중하다"며 "도전하는 자세로 일할 수 있을 때가지 일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년퇴직하면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즐기려고 했어요. 그동안 돈 버느라 고생했으니 이제 편해져도 괜찮지 않으냐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따분하더라고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뭐라도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김정규 한국석유관리원 시설관리팀 전기반장은 털털 웃었다. 일을 하게 돼 무척이나 즐겁다는 표정이었다. 일이 고단하지 않으냐고 묻자 그는 "안 하던 일을 하니 신기하고 재미있다. 아직 초보라 하나하나 물어보며 일을 배우고 있다"며 손사래를 쳤다.

김 반장이 한국석유관리원에 취업한 것은 채 다섯 달이 되지 않는다. 전기시설을 관리하는 것이 주 업무다. 형광등 교체부터 냉동기와 보일러 가동, 변전실과 분전실 전기관리 등이 그의 일이다.

자격증 공부 '36년 부사관' 군인정신으로 돌파

김 반장의 원래 직업은 군인이었다. 부사관으로 36년을 근무하다 지난해 원사로 전역했다. 퇴직할 당시만 해도 쉬고 싶은 마음이 지배적이었다. 실제로 한동안 집에서 아내와 시간을 보냈다. 함께 일어나 식사를 하고 산책을 다녔다. 자녀들과 지내는 시간도 늘렸다. 즐거웠다.

"군생활을 할 때 짧게는 몇 달, 길게는 몇 년씩 파견을 나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말부부는커녕 '월말부부'가 되기도 했습니다. 가족이 늘 그리웠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자 야전을 누비던 몸이 근질거리기 시작했다. 일이 필요했다. 생활정보지를 뒤적였다. 하지만 36년 군생활의 경험을 필요로 하는 곳을 찾기는 어려웠다. 그러다 '한국폴리텍대학'의 학생 모집 공고를 발견했다.

"폴리텍대학 성남캠퍼스에서 운영하는 시니어직업훈련센터였어요. 돈을 내기는커녕 오히려 훈련비 조로 월 24만원을 지급하는데다 실습시설이 좋아서 교육도 만족스러웠습니다. 도배, 보일러시공, 전통문양타일 등 여러 과정이 있었는데 전기 관련 자격증이 희소가치가 있어 보여서 내선공사 과정을 신청했죠."

나이 들어 공부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다. 용어 자체가 낯설어 '진군'하기 힘들었다. 새벽부터 동영상을 뚫어져라 보고 오후 늦게까지 공부했지만 처음 본 시험은 '낙방'이었다. 두번째도 실패였다. 아내는 "생고생하지 말고 그만두라"고 말렸지만 오히려 이왕 시작한 것 끝을 보겠다는 다짐이 굳어졌다. 몸에 밴 군인정신이었다. 그리고 세번째 도전만에 '전기기능사' 자격시험에 합격했다.

"돈도 좋지만 일 자체가 너무 소중합니다"

취업은 어렵지 않았다. 자격증 시험을 본 직후 학교에서 연락이 왔다. 한국석유관리원에 자리가 났다는 것이었다. 면접을 보고 며칠 만에 출근을 시작했다.

익숙지 않은 일이라 시행착오도 많았다. 하루를 꼬박 일하고 하루를 쉬는 24시간 2교대 근무여서 피곤하기도 했다. 하지만 재미도 있고 보람도 있었다.

"보람이요? 직원들이 요청하는 일을 무사히 끝냈을 때 기쁘죠. 가령 형광등이 고장 났을 때입니다. 형광등을 교체해도 불이 들어오지 않으면 저에게 연락이 옵니다. 형광등을 해체하고 수리해서 다시 불이 들어오면 좋아합니다. 그러면 저도 좋아요. 보람이 있죠."

김 반장은 새로운 도전을 계획하고 있다. 상위 자격증인 '전기산업기사'를 준비할 참이다. 기능사로 2년을 일하면 시험 자격이 주어진다. 합격하면 주간근무나 3교대 등 근로여건이 더 좋아질 수도 있다.

"할 수 있을 때까지 일할 생각입니다. 돈도 좋지만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소중합니다. 계속 도전하며 살 계획입니다." G

글·변형주 기자

직업능력 향상 지원정책

한국폴리텍대, 교육비 무료·훈련수당도 지급

베이비붐 세대의 직업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재취업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한국폴리텍대학의 내선공사 교육 모습.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이 본격화되면서 정부는 이들의 직업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다. 직업교육 지원을 강화하고 취업을 돕고 있다.

'내일배움카드제'를 강화한다. 퇴직과 전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고령자의 취업과 창업이 용이한 직종과 훈련과정을 안내하고 참여를 권장한다. 1인당 연간 2백만원 한도에서 훈련비의 60~80퍼센트를 지원한다. 재산이 일정수준 이하인 고령 실업자에겐 훈련비 전액을 지원한다.

사업주가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직무능력향상훈련을 실시할 때도 훈련비를 지원한다. 자비로 전직훈련 과정을 수강하는 재직 고령자에게도 훈련비의 일부를 지급한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근로자와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 등이 대상이며 연간 1백만원, 5년간 3백만원 한도에서 소요비용의 50~80퍼센트를 지원한다.

국책직업교육훈련기관인 한국폴리텍대학은 '베이비부머 훈련'을 운영하고 있다. 만 45~50세 미만의 중년, 50~55세 미만의 준고령자, 55세 이상의 고령자가 대상이다. 보일러, 전기공사, 도배, CNC기계, 간판디자인 등 다양한 직종의 교육이 개설돼 있으며 교육기간은 1~3개월이다. 매달 소정의 교육훈련수당이 지급되며 별도의 교육비는 없다.

현재 9개 캠퍼스에서 베이비붐 세대 훈련이 실시되고 있으며 내년에는 34개 캠퍼스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국폴리텍대학은 베이비붐 세대 훈련을 활성화하기 위해 캠퍼스별로 적정 운영 모형을 선정하고 지역 내 유관기관과 업무 체제를 구축해 기술과 기능 중심의 블루칼라 직종의 훈련을 우선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내년에 도입될 예정인 '50+새일터 적응지원 사업'은 취업이 어려운 50세 이상 구직자를 위한 프로그램이다. 중소기업 현장연수 기회를 제공해 취업능력을 제고하는 것이 목표다.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고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취업에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 대상이다.

문의 한국폴리텍대학 www.kopo.ac.kr ☎02-2125-6500
내일배움카드 www.hrd-card.good.ac ☎1350(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여행사 간부서 전문강사 변신한 강동수씨

"퇴직전 부터 미리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인생 2모작'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시대다. 외국의 경우 베이비붐 세대는 퇴직 후에도 재취업, 징검다리 직업(Bridge Job · 완전히 은퇴할 때까지 10년 이내에 파트타임이나 풀타임으로 하는 일자리) 등 경제활동을 계속해 노동시장에서 완전 은퇴까지 약 20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부도 베이비붐 세대의 자율적 고용연장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현장연수 등 취업능력을 높여 주는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김승완 기자

여행사 간부에서 전문강사로 변신한 강동수씨가 대일관광디자인고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국제매너와 면접스피치, 기업 서비스 실무를 가르치고 있다.

국내 굴지의 여행사에서 잘나가던 20년차 사원 강동수(49)씨. 그는 2009년말 구조조정으로 직장을 떠났다. 그의 갑작스런 퇴직은 베이비붐 세대의 고민을 압축적으로 담고 있다. 20년간 청춘을 바친 그는 "정든 일터에서 떠나야 한다는 것은 순식간에 어둠속에 갇힌 듯한 충격이었다"면서 "주변 동료들은 '더 버텨 보지 왜 쉽게 결정하냐'고 아쉬움을 토로했지만, 더이상 버틸 수 없었다"고 했다.

8개월 동안 실업급여를 받아 가며 지내던 그는 재취업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그는 "상담도 하고 전화통화도 해 보았지만, 면접에서도 '열정'과 '근면함'은 50세라는 벽에 가려 무기가 되질 못했다"고 털어놨다.

무작정 덤비면 나이가 재취업 걸림돌로

8개월이란 시간이 흐르자 가정형편은 점점 어려워졌다. 그는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부모님이 중풍으로 쓰러졌고, 직장에서 받아 왔던 많은 액수의 봉급과 높은 직급은 직장을 찾는 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

전 직장에서 세일즈 활동을 통해 만났던 지인들은 그에게 큰 '재산'이었다. 용기를 내 지인들을 만나며 미래를 상담했다. 그러던 차에 건국대 미래지식원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강의법을 배우기로 했다.

그는 여행사에서 다양한 내·외국들을 만나 얻었던 '산지식'을 바탕으로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은 남들 앞에 서서 지식을 전달하는 강의'라고 생각했다.

1년 동안 건대아카데미에서 강의법을 배운 그는 무역협회 중견인력고용지원센터에서 산업체 우수강사 모집을 한다는 메일을 받게 됐다. 강씨는 대한무역협회 도움으로 대일관광디자인고등학교에 관광산업체 우수강사로 합격했다.

무역협회 김영희 실장은 "강동수씨는 꾸준한 재취업 노력으로 성공한 케이스로, 현재 대일관광디자인고에서 강사로 활기찬 생활을 하고 있다"면서 "베이비붐 세대도 제2인생을 위해 필요한 기술이나 능력을 퇴직 전부터 미리 준비하고 개발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베이비붐 세대가 주된 일자리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민간의 자율적 고용연장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현장연수 등 취업능력을 높여 주는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전문직 은퇴자들이 사회복지시설·시민사회단체 등에서 경험과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대책 등이다. 이런 정책들은 베이비붐 세대가 보다 활기차고 긍정적인 노후생활을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7~49년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인 단카이(團塊) 세대를 위해 60세 정년을 보장했다. 영국에서도 제3섹터들의 수요를 파악해 50~60대 퇴직자 가운데 경제활동을 하길 원하는 사람들을 연계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6곳 운영중

우리나라의 경우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노인부양 부담이 커지고 있어 퇴직자들의 노후생활 문제가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사회가 감당해야 할 부담을 줄이려면 베이비붐 세대 개인적으로는 물론, 국가적 차원에서도 현실성 있는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를 설치해 노동시장에서 조기 퇴출되고 있는 중견 전문인력의 재취업 알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중견 전문인력'은 일정한 경력과 노하우를 갖춘 퇴직 중견 전문인력을 말한다.

고용노동부는 또 무료 직업소개 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로서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단체 가운데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로 지정해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현재 한국무역협회, 노사발전재단, 중소기업중앙회 등 6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팀의 나기호 사무관은 "나이가 듦에 따라 생산성이나 능력이 일률적으로 떨어진다는 과학적 증거가 불충분한데도 중고령인력 활용은 능률·비용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라는 편견이 아직도 팽배해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이라면서 "국가에서 적극적인 중고령자 재훈련 기회를 제도적으로 계속 마련하고 베이비부머도 용기를 가지고 도전한다면 늙어서도 능력을 발휘하고 인생의 새로운 보람을 찾는 인생 이모작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다. G

글·오동룡 기자

나의 성공 창업기

'시니어창업스쿨' 통해 창업… 월 2백만원 매출

1956년생으로 올해 54세인 저는 2003년 7월 직장(광주은행)을 떠났습니다. 당시 불과 1년 사이에 직장생활을 하던 4형제 가운데 막내만을 남기고 3형제가 모두 구조조정으로 직장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때까지 노후준비는 언감생심이었습니다. 후두암 수술 후유증으로 병석에 누워 계시던 부친의 병원비와 자녀 교육비 부담이 무겁게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한 친구는 은행원 출신인 제 경력을 감안해 자신의 회사에 자금담당 상무로 자리를 마련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 친구도 5~6개월이 지나자 출자를 하라는 쪽으로 부담을 줘 결국 퇴사하고 말았습니다.

앞으로 80~90세까지 장수하는 고령화 사회에 적응해 가려면 당장 수입에 집착하기보다 20~30년 후의 장기적인 안목을 가져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제 장점을 개발해 1인창업에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직장생활 초기부터 운동을 좋아해 휘트니스 원리, 역학, 물리 등에 마니아였을 정도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었습니다.

무역협회의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직원 한 분이 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시니어 창업스쿨'(업종 전문 컨설턴트 양성과정)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순간 '이것이다' 하는 느낌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가정형편상 재취업의 미련은 남아 있었지만,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1인창업 쪽으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물론, 정부의 정책지원으로 이뤄지는 과정이었지만 성패(成敗)는 본인의 각오에 달린 것입니다. 주변 동료들은 거의 정부의 지원에만 의존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것엔 한계가 있는 법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컨설턴트로서의 기본철학과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전문가의 길을 갈 수 있는 자신감마저 얻게 됐습니다. 본인의 이름과 명예를 걸고 전문가로서 자기 철학을 실행에 옮긴다는 것은 대단한 변화였습니다.

밤을 새워 가며 강의 콘텐츠를 하나하나 준비해 나갔습니다. '국민 대다수가 지속적인 운동을 하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한다' '올바른 운동법을 모르고 있다' 등 약 60쪽의 강의노트를 만들었습니다. 용기가 생겼습니다. 제가 구상한 모든 생각을 추가로 메모하여 강의자료를 계속 꾸며 나갔습니다. 드디어 운동 각(角)을 산출하는 도구(특허 준비중), 창작물 저작권 등록 2건, 전립선 운동기구 개발(특허 준비중)까지 가는 엄청난 진전을 일궈냈습니다. 시니어 창업스쿨을 마친 다음, 곧바로 작년 12월 1일자로 사업자등록을 해 창업을 했습니다. 첫 출시 콘텐츠인 'GFC(Good Feel Cleaning · 좋은 느낌의 세탁)'를 중심으로 강의활동을 시작해 현재 월 2백만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건강을 위해 서울시교육청에 재능기부를 통해 학부모, 청소년, 교사에게 무료로 봉사하는 활동도 겸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중심 역세권에 '미니 휘트니스 스튜디오' 5곳도 개설할 것입니다.

민찬기 (민찬기운동처방연구소장)

젊은이들과 공동창업한 서울미디어랩 성기용 대표

"함께 힘 모으니 성과도 보람도 두 배"

누구나 한번쯤 자기 사업을 생각해 볼 것이다. 특히 퇴직 후 새로운 일을 준비하는 이들에겐 더더욱 그러하다. 올해 6월 영상콘텐츠 제작사 서울미디어랩을 창업한 성기용(50) 대표는 트렌드를 읽는 눈과 적극성만 있다면 은퇴 후 창업이 더욱 가까워질 거라고 조언한다.

꾸준한 노력으로 창업에 성공한 서울미디어랩 성기용 대표(가운데)와 직원들. 성 대표는 경륜과 패기라는 신·구의 조화가 회사를 이끌어나가는 가장 큰 원동력이라고 말한다.

서울 마포구에 자리한 한 교육센터. 이곳이 바로 성기용 대표의 사무실이 있는 곳이다. 그가 차린 서울미디어랩은 각종 행사의 홍보용 영상 촬영과 제작, 온·오프라인 HD 유비쿼터스 러닝 솔루션 개발을 하는 회사다. 여기에 요즘은 교육사업에까지 진출했다.

성 대표는 대표적인 베이비붐 세대다. 무역회사와 보험회사 등을 거쳐 건설회사에선 임원 자리에까지 올랐지만 늘 '2인자의 설움'이란 단어를 머리 속에서 지워낼 수 없었다. 그러던 중 회사의 경영이 어려워지자 성 대표는 퇴직을 결심하고 24년간의 직장생활에 마침표를 찍었다. 성 대표는 퇴직 후 생계에 대한 부담이 있었지만 '창업'이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 조금은 험난한 길을 선택했다.

창업의 꿈 안고 퇴직… '시니어 창업스쿨'서 돌파구

"회사 내적인 문제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내 사업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퇴직 후 잠시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니 더욱 결정이 확고해지더라고요. 그러곤 중소기업청(이하 중기청)이 주관하는 시니어 창업스쿨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시니어 창업스쿨에 다니게 되면서 꿈같았던 그의 희망이 현실로 다가오는 것을 느꼈다.

"60시간의 교육과정 동안 창업에 필요한 기본지식에서부터 사업계획서 작성 및 분석, 현장실습, 가상시뮬레이션 등 체계적인 교육을 받았습니다. 교육시간이 아니더라도 항상 나와서 사람을 만나고 정보를 수집했어요."

성 대표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업종의 사람들과 소통했다. 중기청과 소상공진흥원 사이트에서 무료상담을 받고 SNS를 통해 인맥을 형성했다. 온라인 정보창구인 시니어창업넷(www.seniorok.kr)을 통해서는 전문지식을 쌓았다. 그가 창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트렌드 읽기'를 생활화한 것이다.

"흔히 퇴직 후에 창업을 한다고 하면 유행을 좇아서 생소한 일에 뛰어들곤 합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달라요. 우선 숙련의 시간을 가지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아이템을 정했으면 철저하게 분석하고 트렌드를 읽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세가 가장 중요합니다."

처음 시작한 일은 개인 인터넷생방송 자키, 지역행사와 세미나를 온라인 생방송으로 중계하거나 영상콘텐츠를 만드는 일이었다. 사회 초년생 시절 비디오 프로덕션에 근무했던 경험을 살리고 싶었다. 남들이 '짠돌이' 소리를 할 정도로 아끼면서 살았다. 배낭 하나에 촬영장비를 담고 다니면서 바쁘게 일했다. 하지만 실질적인 수입이 생기지는 않았다.

'고립된 시니어'만 아니면 경륜 필요한 곳 꼭 있어

그렇게 한동안 별다른 수입 없이 좋아하는 일을 한다는 것만으로 만족하며 뛰어다녔다. 그러던 중 예비창업자들의 정보공유 및 활동 공간인 시니어 비즈플라자에 찾아가 젊은 방송전문가들과 함께 본격적인 창업준비에 돌입해 한 달 만에 서울미디어랩을 설립했다.

부족한 자금은 대출을 했다. 때마침 창업진흥원에서 예비창업기술화지원을 해 주는 과제공모에 채택되어 아주 낮은 이율로 대출을 할 수 있었던 것. 그렇게 자기자본금 3천만원에 지원자본금 7천만원을 합쳐 총 1억원으로 창업에 성공했다.

"사회 경험이 많은 저는 경영에 대한 노하우가 있습니다. 반면 저와 함께 창업한 젊은 이사들은 트렌드를 읽는 능력과 기술적인 측면에서 장점이 있지요. 연륜과 패기가 합치면 큰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서울미디어랩은 영상물 제작 외에 교육사업도 펼치고 있다. 사무실이 자리한 한솔인재교육원 내에서 UCC 제작 마케팅, 방송영상전문가, 영상미디어실전창업 등 3개월 과정의 노동부계좌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 중소기업청·소상공인진흥원
>
> **시니어 창·취업 지원사업**
>
> 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진흥원에서는 시니어 창업스쿨, 시니어 비즈플라자 운영 등 창업·재취업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
> **■ 시니어 창업스쿨**
>
> 정부기관 최초로 선보인 시니어 창업스쿨은 만 40세 이상의 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경력·전문성·네트워크 등 개인별 경력을 활용한 창업준비부터 창업실행까지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시니어 창업교육프로그램이다. 올해에는 시니어 창업스쿨 운영기관 25개를 선정하였고 향후 2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
> 교육은 80시간 이상으로 구성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으로 창업준비부터 창업 후 조기정착을 위한 코칭, 현장실습, 사후관리 등 단계별 교육을 실시한다. 총 교육비의 80퍼센트는 정부에서 지원한다.
>
> 교육수료 후에는 사후관리 프로그램을 실시하며, 수료생은 시니어창업전용자금(연간 1백억원, 개인한도 5천만원) 및 지역신용보증의 대상으로 선정된다.
>
> **문의** 시니어넷(www.seniorok.kr) ☎042-363-7607
>
> **■ 시니어 비즈플라자 지원사업**
>
> 시니어 비즈플라자는 퇴직(예정)자들의 창업과 재취업을 돕는 지원센터다. 중소기업청이 주관하고 지자체와 협력하여 시니어 비즈플라자를 서울, 수원, 의정부, 대구, 부산 등 전국 7개 지역에 지정·운영하고 있다. 창업·취업을 희망하는 퇴직자들을 위해 맞춤형 교육, 커뮤니티 활동, 컨설팅(비즈멘토 및 자문단 상담), 사무공간 등 다양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
> 창·취업 관련 전문성을 갖춘 매니저들이 상주하여 초기창업 준비단계, 아이디어 구체화단계, 실행단계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창업시 개인전용 사무공간을 지원하여 즉석 멘토링 서비스가 가능하다. 만 40세 이상의 시니어라면 누구나 비즈플라자의 회원이 될 수 있으며 방문 즉시 회원카드를 발급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
> **문의** ☎042-363-7608

여기서 멈추지 않고 성 대표는 새로운 도전을 계속 준비하고 있다. 올 연말까지 서울미디어랩을 사회적 기업으로 만들고 서울미디어방송센터란 연구소 겸 협회도 설립할 계획이다. 미국, 중국, 인도 등 해외진출도 꿈꾸고 있다. 성 대표는 마지막으로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 후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을 한마디로 압축했다. 그것은 바로 '고립된 시니어가 되지 말라'는 것이다.

"은퇴했다고 해서 스스로 작아지고 고립될 필요가 없습니다. 어디에서건 '경륜'이라는 것은 항상 찾게 되어 있는 법이거든요. 지치지 않는 도전정신을 갖고 적극적으로 찾아다니다 보면 반드시 새로운 기회가 생깁니다." G

글과 사진·손수원 기자

무료교육 받고 어린이집 조리사 취업 이경원씨

"숨돌릴 틈 없이 바쁘지만 일이 있어 행복"

서울 강서구 방화동의 구립 새싹어린이집에서 조리사로 근무하고 있는 이경원씨는 사업을 그만둔 지 6개월 만에 재취업에 성공했다. 또래 여성에 비해서 비교적 일찍 새 일자리를 찾았다. 이씨는 "요즘은 60도 청춘이라고 하지 않느냐"며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 일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경원(54)씨가 운영해 오던 분식집의 문을 닫은 것은 올해 초였다. 내 사업을 해 보고 싶다는 생각에 야심차게 시작한 일이었지만, 사업 수완이 없어서인지 장사가 잘 되지 않았다. 고민 끝에 이씨는 지난 5월 강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를 찾았다. 새일센터의 단체급식 전문가 교육을 받기 위해서였다.

이씨는 이전에도 어린이집 조리사로 일한 적이 있었지만, 단체급식에 관해 전문적으로 공부한 것은 처음이었다. "단체급식 전문가 교육을 수료하면 보다 체계적으로 조리사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5월부터 7월까지 세 달 동안 교육을 받았죠. 그 결과 지금 있는 새싹어린이집에 취업할 수 있게 됐어요."

이씨는 지금 직장에 매우 만족한다고 했다. 이전에 다니던 어린이집은 적은 보수에 4대보험도 적용되지 않는 곳이 태반이었다. "여긴 국·공립 시설이라 믿을 수 있는 데다 근무환경도 좋아요. 건강만 허락한다면 이 어린이집에서 정년을 맞고 싶어요(웃음)."

세 달 동안 단체급식 전문가교육 받아

이씨는 어려울 때마다 새일센터가 큰 도움이 됐다며 여러 차례 "센터에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고 했다.

구립 새싹어린이집에서 조리사로 일하고 있는 이경원씨는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일하고 싶다"며 "아직도 나를 원하는 곳이 있다는 게 힘이 된다"고 말했다.

이씨는 이전에도 새일센터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 "6년 전에 다른 어린이집에서 일한 적이 있어요. 그때도 역시 새일센터의 도움을 받았죠. 그 어린이집에서 1년3개월 정도 일했는데, 제 임금의 80퍼센트 정도는 서울시에서 지원해 준 거였어요." 이씨가 몸담고 있던 어린이집은 센터의 중개 덕분에 임금의 20퍼센트 정도만 부담한 채 이씨를 고용할 수 있었다.

지난 2006년 이씨가 처음 요리를 정식으로 배운 곳도 새일센터였다. 그때 획득한 조리사 자격증은 지금까지 이씨를 지탱해 준 원동력이 됐다. 이씨는 "분식집을 그만뒀을 때 약간은 막막했지만, 일을 영영 쉬겠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다"고 했다. 구립 새싹어린이집의 원장인 이경란씨는 "새일센터에서 정말 좋은 분을 소개해 주셨다"며 웃었다.

이씨의 하루는 어린이집 원생들의 간식을 준비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아이들이 오전에 먹을 간식을 준비하면 곧 점심시간이 된다. 점심시간이 끝나고 오후 간식을 챙기면 어느덧 저녁식사 시간이다. 저녁식사까지 모두 준비해 놓으면 그제서야 이씨의 일과는 마무리된다.

숨 돌릴 틈 없이 바쁜 일정이지만 그는 "아이들의 '맛있다'는 한 마디면 힘든 줄도 모른다. 일을 할 때가 가장 행복하다"고 말한다. "일하는 동안은 삶에 활기가 돌잖아요. 적은 나이도 아닌데 아직도 나를 원하는 곳이 있다는 게 힘이 되기도 하고요."

이씨는 "새일센터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생각보다 다양해 놀랐다"며 "자신의 적성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골라 수강하면, 재취업의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주변 사람들은 50대 중반의 나이에도 활발하게 활동하는 저를 부러워하지만, 막상 어디로 가면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건강 허락하는 한 계속 일하고 싶어요"

"새일센터를 알고 있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이렇게 좋은 정책은 널리 알려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해야 하는데, 저로서는 안타까울 따름이죠."

이씨는 "일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모두 일자리를 얻을 수 있게 정부의 지원책이 더욱 확대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교육 프로그램 규모를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새일센터를 비롯한 재취업 지원 교육 프로그램에 수강생 수 제한이 있어, 교육을 받고 싶어도 못 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본인의 의지도 중요하다. "제가 하고 있는 조리사 일도 쉬운 것 같지만 생각보다 힘들거든요. 저와 같이 교육을 받았던 30명의 수강생 중 지금까지 일하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대부분 오래 못 견디더라고요." 그는 "무슨 일에든 끈기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설 자리는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청년실업으로 힘들어하는 20대도 기운을 냈으면 좋겠어요. 20대도, 50대도 모두 함께 일할 수 있는 행복한 사회가 빨리 왔으면 합니다." G

글·박소영 기자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직업교육훈련프로그램

강서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찾은 경력단절여성들이 재취업 상담을 받고 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취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직업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은 직업 상담, 직업교육 훈련, 취업알선, 취업 후 사후관리 등으로 이뤄져 있는 종합 취업 지원 서비스다. 2011년 현재 전국에 90개의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운영 중이며, 내년까지 전국 1백개소가 지정될 예정이다.

직업 상담 프로그램은 1대1 맞춤형 취업상담을 지향하며, 전문 상담원이 개인의 경력과 학력에 따라 맞춤형 상담을 제공한다. 여성들은 '찾아가는 취업상담서비스'를 통해, 마트나 여성회관 등의 장소에서도 취업 상담을 받아볼 수 있다. 유망 직종이나 자격·시험 정보,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소개해주는 등 취업 정보도 제공한다.

직업교육 훈련에는 필요한 여성에게 무료로 실시하는 '무료직업교육',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특화교육', 경력단절여성을 인턴으로 채용하는 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새일여성인턴제' 등이 있다. 경력단절여성은 상담 결과에 따라 직업의식교육, 능력개발 교육, 이미지메이킹 교육 등도 수강할 수 있다. 각 지역 센터별로 3개 내외의 과정을 지원하며, 과정별 정원은 40명 이내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취업이 완료된 후에도 사후 관리를 통해 여성의 사회 진출을 지원하며, 육아 및 가사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한다.

문의 여성가족부 www.mogef.go.kr
☎02-2075-4674(경력단절여성지원과)

아나운서 경력을 살려 분당FM에서 4년째 무보수 방송 진행자로 활약하고 있는 안영주씨. 지금은 '표준어발음과 방송 언어' 관련 교육기부도 하고 있다.

"이걸 왜 몰랐을까?"… 브라보! 제2의 인생

경력도 살리고 보람도 느끼고… 문화·숲 해설사 등 활동영역도 넓어져

요즘 고궁이나 박물관 등에 가보면 '자원봉사' 명찰을 달고 활동하는 50~60대들을 종종 볼 수 있다. '현역 시절' 마음에만 두었던 봉사를 은퇴 후 실천하는 사람들이다. 은퇴 후 봉사와 재능나눔을 통한 사회참여로 제2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공직에 있다 퇴직 후 자원봉사를 하면서 사회를 보는 시야가 넓어졌어요. 경직되고 획일적인 업무에서 벗어나 다양한 계층을 만나다 보니 현직에 있을 땐 몰랐던 것들도 깨닫게 됐고요. 자원봉사를 통해 정신 건강과 신체 건강을 모두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국립과천과학관 1층 안내데스크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박기남(60)씨의 말이다. 박씨는 나란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라영금(57)씨와 함께 '과천상록봉사단' 소속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 있다. 과천 지역에 거주하는 퇴직공무원 25명으로 구성된 '과천상록봉사단'(이하 봉사단)은 국립과천과학관과 과천정보과학도서관 안내 자원봉사 외에 8년째 과천 지역 내 독거노인 돌봄 활동도 펼쳐오고 있다.

"퇴직 후 무엇을 할지'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는 박씨는 "현직에 있을 때 바쁘다는 핑계로, 여유가 없어서 실천하지 못했던 봉사를 해보자는 생각에 활동하게 됐는데 현명한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은퇴 후 삶의 만족도 높아 건강도 좋아져

라씨는 "봉사를 통해 가치관은 물론 성격도 활달해졌다"고 밝혔다. "독거 어르신들과 수다도 떨고, 박물관 안내를 담당하며 남녀노소를 직접 대하다 보니 현직에서 쌓지 못했던 산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 같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분당·판교 지역방송인 분당FM(90.7메가헤르츠)의 라디오 진행자 안영주(50)씨는 아나운서로 활동하던 방송 경력을 살려 재능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경우다. 그는 매주 수요일 오후 10시부터 1시간 동안 방송되는 '안영주의 문화산책'을 올해로 4년째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물론 무보수다.

처음에는 경력을 살려 취미로 시작한 일이지만, 취미라고 하기에 방송국 내에서 그의 비중은 무시할 수 없다. 전문 방송인으로서 방송 노하우를 공유하는 것은 물론 자신의 프로그램에 대한 원고작성에서부터 게스트 섭외, 방송진행까지 다양한 영역을 담당하고 있다. 분당FM에서 진행하는 방송아카데미의 '표준어발음과 방송언어에 대한 강의'도 그의 몫이다.

"많은 사람이 은퇴와 동시에 할 일을 잃는 게 안타까웠어요. 저 역시 은퇴 후 경력단절로 무기력해지기도 했습니다. 일을 다시 시작하려니 문도 좁고, 기회도 많지 않았어요. '내가 가진 재능을 나누자'는 생각에 재능나눔이나 봉사에 눈을 돌리니 제가 있어야 할 자리가 보였습니다."

한때 울산방송국 아나운서로 활약했지만 은퇴 후 자녀들을 다 키우고 나니 공허함이 찾아와 빈둥지증후군을 앓기도 했다는 그는 "다시 라디오 방송을 진행하며 사회를 보는 시야가 넓어졌다"면서 "경제적 부담이 크지 않다면 재능기부나 봉사는 은퇴 후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베이비붐 세대들의 사회참여 욕구가 높아짐에 따라 은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자원봉사 모임이나 재능나눔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문화해설사나 숲해설가가 인기 높다.

'한국의재발견'에서는 '우리궁궐지킴이'라는 문화해설사를 양성해 4대 고궁과 종묘에서 무료 자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현재 문화해설사로 활동하는 3백여 명 중 50대 이상이 4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경험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일정기간 60여 시간의 기본이론교육과 12주간의 수습활동을 진행해 최종 해설사를 선발하고 있다.

퇴직공무원 자원봉사자 모임 '과천상록봉사단' 소속 박기남(왼쪽)씨와 라영금씨는 국립과천과학관 안내 봉사를 하고 있다.

전문분야별 사회공헌 일자리 확대

고용노동부는 사회공헌에 뜻이 있는 베이비붐 세대들을 위해 ▲2012년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지원인원 규모를 확대한다. (예비)사회적기업 취업지원 인원을 2011년 1만3천8백77명에서 2012년 1만5천명으로 늘리고 사회복지시설 등과 연계해 사회참여를 돕는다. 아울러 비영리 민간 분야에서 자원봉사형 일자리를 발굴·연계할 수 있도록 국가적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이와 함께 ▲유급근로와 자원봉사 결합 모델을 확산해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한편 기업 임직원, 법조인, 외교관, 교원, 과학기술인, 군경소방공무원 등 전문직 은퇴인력들을 활용한 ▲교육기부 프로그램을 개발해 세대 간 지식과 지혜 나눔을 실현한다. 전문직 은퇴자를 대상으로 재교육을 실시해 ODA 전문가로 양성, 글로벌 사회공헌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유급근로+자원봉사' 사회공헌 일자리 사업도

국립중앙박물관 자원봉사자 3백20명 중에서도 50~60대가 60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 관련 분야 경력자나 전문가는 '전시해설 자원봉사자'로 지원할 수 있고 경력이 없더라도 일반 자원봉사자로 참여가 가능하다.

숲생태지도자협회 부설 '숲자라미'는 사회 공헌일자리 시업 참여기관이다. 은퇴노인들을 전문 숲해설가로 육성해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펼치고 있다. 협회 소속 숲해설가 중 55세 이상이 40명이다.

사회 공헌 일자리 사업에 대한 관심도 높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는 '세상을 바꾸는 새로운 시작을 봉사로'라는 의미의 '세시봉사단'이라는 사회 공헌 일자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유급근로와 자원봉사를 결합한 세시봉사단은 은퇴한 베이비붐 세대의 사회공헌을 유도한다.

세시봉사단은 전문지식과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보유한 40대 이상의 전문직 퇴직자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세시봉사단에게는 식비 5천원, 교통비 3천원의 지원금과 매 시간당 2천원 상당의 나눔포인트(문화상품권, 온누리상품권, 교통카드 등)가 지원된다.

글과 사진·박근희 기자

'평생현역' 시대… 나만의 로드맵을 그려라

노후자금 중요하지만 퇴직 후 30~40년을 어떻게 보낼지 설계해야

지난해부터 7백10만 베이비붐 세대의 정년퇴직이 시작되면서 직장인들의 노후대비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대부분의 관심사는 노후자금 마련에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돈이 있다고 노후대비가 다 된 것은 아니다. 노후자금 못잖게 중요한 것이 있다. 퇴직 후 30~40년 동안의 후반인생을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가가 그것이다.

퇴직 후 어떤 삶을 살 것인지를 계획해야 한다. 살림이 넉넉하다면 사회공헌활동에 몸담는 것도 좋은 결정이다. 대한적십자 회원들이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직장인들은 일생에 세 번의 정년을 맞는다. 첫번째 정년은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정하고 있는 고용정년이다. 그리고 제2의 정년은 무슨 일이든 자기 스스로가 정해서 하는 일의 정년, 제3의 정년은 하느님의 결정에 따라 세상을 떠나는 인생정년이다.

우리보다 고령사회를 일찍 경험한 선진국의 직장인들은 젊은 시절부터 이 세 번의 정년을 어떻게 맞을 것인가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준비를 한다. 고용정년 후 30년 넘는 기간 동안 좀 더 돈을 벌기 위한 인생을 살 것인지, 자기실현을 위한 인생을 살 것인지, 사회환원적인 인생을 살 것인지, 아니면 이 세 가지를 병행하면서 살 것인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고 준비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직장인들도 이제는 인생에서 세 번 맞는 정년에 대해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에 들어섰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의 대부분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라도 우선은 재취업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를 위해서는 주특기가 있어야 한다. 고령 세대를 채용하려는 회사들은 그가 과거에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었느냐보다는 어떤 일을 잘할 수 있느냐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주특기라고 해서 꼭 고도의 전문지식이나 능력만을 생각할 필요는 없다. 사소하게 생각되는 능력이라도 남다른 점이 있으면 그것이 바로 주특기이다. 따라서 자신만의 주특기를 어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많은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다. 마땅히 내세울 만한 주특기가 없는 경우에는 성급하게 취업자리를 알아보기 전에 주특기를 만들 수 있도록 재교육을 받는 것이 좋다.

필자의 직장후배 한 사람은 50대 초반에 퇴직을 한 후 1년 가까이 재취업 자리를 알아보았지만 여의치 않자, 과감히 박사과정에 도전하여 학위를 취득한 후 지금은 한 지방대학의 교수로 근무하고 있다.

재취업 후의 마음가짐 또한 중요하다. 이전과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급여는 전 직장과 비교도 안될 만큼 낮아 실망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다. 자신의 가치가 떨어진 게 아니라 퇴직 전에 받던, 회사에 공헌한 것 이상으로 받았던 '지불 초과분'이 사라진 결과라고 생각해야 한다.

재취업 전에 남다른 '주특기' 마련을

재취업한 직장을 전 직장과 함부로 비교해 비하하지 말아야 한다. 큰 조직에서 근무하다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면 그 회사의 시스템이나 시설이 크게 뒤떨어져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큰 조직에서는 자기가 맡은 일만 열심히 하면 되었는데, 작은 회사에서는 심한 경우 화장실 청소까지 이런저런 일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대조직의 시스템에 익숙한 사람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왜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하청을 주는가. 중소기업이 효율성 면에서 대기업보다 뛰어나기 때문이다. 이런 점을 충분히 이해한다면 전 직장과 함부로 비교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젊은 후배들에게 경쟁자가 아니라 조언자로 비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자신의 공적을 과시하고 싶은 마음을 억제하고 소리 없이 도와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 직장에서는 부하 직원들이 해 주던 일을 스스로 처리해야 할 때도 실망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신이 도움을 주는 존재로보다는 장애물로 여길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현역시절에 충분한 노후자금을 마련해 두어 굳이 재취업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런 경우에는 취미활동이나 사회공헌활동을 하면서 용돈도 버는 일을 권한다. NPO(민간 비영리 조직·Non Profit Organization)활동이 대표적이다.

별도의 직업교육을 받은 후 재취업을 노리는 것도 효과적인 전략이다.

일반적으로 자원봉사 활동은 1백퍼센트 무보수 활동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NPO활동은 약간의 보수를 받는 경우도 있다. 아무리 자원봉사라 해도 1백퍼센트 무보수로는 오래 지속하기 어렵기 때문에 교통비와 점심값 정도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해서 능력 있는 자원봉사자들이 장기간 활동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현재 미국에는 2백만 개 정도의 NPO가 활동을 하고 있다. 이곳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전체 취업인구의 약 10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활성화돼 있다.

보람 찾아 사회공헌·봉사활동도 고려할 만

미국 미시간 대학에서 실시한 '미국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후 자원봉사활동 현황조사'에 따르면 전체의 70퍼센트 정도에 이르는 은퇴자가 공식·비공식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고, 은퇴 이전에 자원봉사활동 경험이 있는 사람이 은퇴 이후에도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서도 몇 년 전부터 현역에서 물러난 전문가들이 NPO를 설립하거나 이미 설립된 단체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우리나라의 NPO활동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력이 커지고 사회가 성숙하면 NPO의 역할이 그만큼 커지는 경향이 있다. 기본생활비 정도는 걱정이 없는 은퇴자들이 약간의 수입을 얻으면서 사회공헌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이다.

직장인들이 현역시절에 쌓은 전문성을 후반 인생에서는 사회공헌활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문자 그대로 '평생현역' 시대가 오고 있는 것이다.

글·강창희 (미래에셋퇴직연금연구소장)

일러스트 · 유재일

'인생 후반전' 생애설계 교육 의무화시켜라

수요자 중심으로 정책 전환… 스스로 미래 준비할 여유 줘야

최선의 베이비붐 세대 퇴직대책은 '일자리'임에 틀림없다. 정부는 다양한 퇴직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제 시작인 만큼 더 많은 프로그램이 개발돼야 한다. 특히 정책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퇴직자의 상황이 저마다 다른 만큼 보다 '맞춤화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인생 40은 '불혹'이 아닌 '불안'시대를 맞이하여 일자리가 최선의 복지라는 차원에서 베이비붐 세대의 일자리 지원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지난 10월 28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를 열고 중소기업 임금피크제 지원요건을 완화해 50세 이상 근로자 고용을 원하는 기업의 연령차별 금지 예외 인정 등의 내용이 포함된 '베이비붐 세대 퇴직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이르면 내년부터 50세 이상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줄여 제2의 직업을 준비하면서 점진적으로 퇴직하도록 '근로시간단축청구제도'를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같은 시간을 일하고 임금만 줄어드는 임금피크제와 달리 줄어든 시간만큼 제2인생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는 것이다.

개인별 고용지원 담당제 운영도 필요

중소기업에 대한 임금피크제 지원 요건도 완화된다. 현행법은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임금 삭감 폭이 근로자의 최고 임금에 비해 20퍼센트 이상이어야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중소기업의 경우 10퍼센트로 낮춘다는 것이다.

또 고령자의 고용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50세 이상자의 고용을 원하는 기업은 예외로 모집·채용 때 연령표시가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준)고령자 명칭도 50세 이상은 '장년'으로 일관 변경하기로 했다. 산업협력 중점교수, 산업체 우수강사 확대를 통해 기업 내 고숙련 기술 보유 인력을 현장훈련 강사로 활용하는 등 상생형 일자리도 지속적으로 개발 및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의 베이비붐 세대 퇴직 정책은 인생 후반전을 스스로 준비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란 측면에서 매우 의미 있는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다. 특히 새롭게 선보인 근로시간단축청구제도는 중고령인력들의 점진적인 퇴직과 청년채용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제도로서 그 성공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그러나 이번 조치들이 대부분 정책 시행자 측면에서 기술되어 있다 보니 정작 수요자인 베이비붐 세대들이 활용하기엔 뭔가 낯설고와 닿지 않는 부분이 있다. 실행력과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선 다음의 세 가지 조치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스스로 준비한다는 측면에서 50세 이상이면 누구나 자신의 경력을 감안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생애설계 교육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대책은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는 경우에만 기업이 전직이나 구직활동 및 퇴직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공공전직 서비스 요건을 완화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직하기로 결정한 후에 전직과 이직을 할 경우 성공률은 그다지 높지 않다. 이직 전 미리 준비하고 대응하기 위해선 50대 이상 전 베이비붐 세대에게 생애설계 플랜 교육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몇몇 대기업에서 자체적으로 생애설계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대부분 전직에 임박해 있어 효과가 낮다. 또한 참가자들은 모두 퇴직하는 것으로 오인되는 낙인효과 때문에 참가율도 저조하다.

둘째, 맞춤형 서비스를 위한 개인별 고용지원 담당제를 운영할 필요도 있다. 현재 3개 섹터, 8개 분야, 27개의 다양한 베이비붐 세대 지원 대책이 나왔지만 대부분 공급자 입장에서 기술되어 있기에 수요자인 베이비붐 세대가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하기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금의 정책을 베이비붐 세대 수요자 측면에서 재구성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즉 내가 50세가 되면 어떤 교육을 받고 실직이 되면 어디로 가야 되고 전직과 창업을 하려면 누구를 찾아가면 되는지 좀 더 쉽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선 모든 50세 이상 베이비붐세대에게 고용지원 담당센터 및 담당자를 지정해 운영하고 이들이 정기적으로 정부의 제도 및 변경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필요시 적극적으로 가이드할 필요가 있다. 수요자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공급자가 미리 수요자를 찾아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조선DB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 및 실직은 가계소득 감소, 자녀교육 부담, 소비침체로 이어지면서 국민생활 불안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들을 위한 정책은 시행자보다는 수요자 중심으로 마련돼야 한다. 베이비붐 세대의 효과적인 은퇴설계를 위한 세미나 현장 모습.

주무부처 업무영역 차별화로 시너지 효과

셋째, 고용노동부는 65세 미만의 중고령자, 보건복지부는 65세 이상 노인의 서비스를 총괄하게 해 고용서비스의 혼선과 혼란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베이비붐세대 관련 고용지원 대책은 중앙정부(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지방자치 단체, 그리고 노사대표기관 등 다양한 주체들이 운영하다 보니 효율성과 시너지효과가 떨어진다.

2011년 4월에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1백40개의 행복노후설계센터를 설치해서 6대 영역별 노후준비 종합진단 프로그램을 도입했다지만 홍보 및 부처간의 연계성 부족으로 인지도가 낮은 상황이다.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 단체 등이 수행하는 고령자 고용서비스를 통폐합하여 서비스의 전문성과 시너지 효과를 노릴 필요가 있지만 통합에 따른 인력조정 및 확충문제, 그리고 중고령자(실업탈출)와 노인인력(소일거리)의 니즈 및 서비스에 차이가 있기에 하나로 통합하기엔 어려움이 예상된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40~65세 미만의 중고령자의 고용서비스를 총괄하여 구체적인 마스터 플랜을 마련하고 보건복지부는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 G

글 · 태원유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원룸 메카’ 신림동 골목에 ‘착한 바람’ 분다

사회복지사들 의기투합… 부동산중개업소 ‘착한부동산 골목바람’ 열어

부동산과 빵가게, 술집이며 원룸이 들어선 평범한 골목에 바람이 분다. 착한 바람이 분다. 청년층의 주거고민 해결에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고자, 삭막한 도시골목에서 사람의 온기를 지키고자 사회복지사들이 부동산중개업소를 열었다. ‘착한부동산 골목바람’이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 원룸 골목에 따뜻한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착한부동산 골목바람’ 식구들. 왼쪽부터 신정은, 최종애, 황민지씨, 그리고 ‘대표일꾼’ 조희재씨.

‘추석이 곧 임박! 그리하여 다들 객지에서 고생하고 있는 20대 세입자끼리 으샤으샤 하자는 의미에서 삼겹살 파티를 합니다. 장소는 동현군의 옥탑방에서 지지고 볶아 먹을 예정!’

이런 공고가 인터넷에 떴다면 지역 동호회? 하겠지만 뜻밖에도 부동산공인중개사 블로그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자리한 ‘착한부동산 골목바람’이다.

착한부동산에 전화를 하니 지하철 2호선 신림역 5번 출구로 나와 빵집이 있는 골목 입구까지 걸어오라고 했다. 골목바람의 ‘골목대장’ 조희재(32)씨가 마중 나왔다. 골목바람 사무실은 투명 유리창에 그려진 흰색 그림이며 나무간판과 원목데크까지 딱 카페 분위기다.

옛날 복덕방처럼 객지생활자들의 구심점

골목바람 식구들은 대표일꾼 조희재씨를 제외하고 모두 여성이다. 블로그 아이디까지 소개하자면 ‘엘리퀸’ 최종애(31), ‘골목시스타’ 황민지(26), ‘바람소녀’ 신정은(24)씨다. 골목바람 식구 중 최종애씨만 순수 공인중개사이고 나머지 3명은 사회복지사다. 조희재씨는 사회복지사·공인중개사 자격증 둘 다 보유하고 있다.

골목바람 블로그에 소개된 방들을 보면 대부분 주머니 얄팍한 사람들을 위한 방들이다. 보증금 기준 1백만원, 2백만원, 5백만원, 1천만원 단위. 중개수수료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억’ 단위는 눈 씻고 찾아도 없다. 또 이제 독립생활을 시작한 젊은층이 알기 쉽게 계약 시 주의할 점, 원룸 ‘사진발’에 속지 않는 법 등도 소개돼 있다.

“주거복지는 바로 우리들 자신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전북 전주가 고향인 조희재씨는 자취생활이 8년째라고 했다. 강원도 강릉 출신인 종애씨도 원룸을 거쳐 지금은 동생과 함께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서 자취생활을 하고 있다.

“요즘 청년층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거문제를 특화시켜 사회복지에 접목시키고자 했어요. 저렴한 방이 절실한 사람들에게 정보도 줄 수 있고, 옛날 복덕방처럼 객지에서 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어 주는 구심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조희재씨는 경기도 부천의 같은 복지기관에서 일하던 황민지씨와 의기투합해 지난 4월 골목바람 문을 열었다. 신은씨는 골목바람이 문 연 후 들어온 ‘공채 1기’. 최종애씨는 2년반 가량 부동산중개사로 일하다 쉬던 차에 인터넷에서 골목바람 공고를 보고 착한 바람에 휩쓸린 ‘공채 2기’다.

희재씨는 ‘원룸의 메카’로 불리는 신림동 골목으로 낙점하게 된 이유는 월세 임대가 많고, 특히 젊은층의 주거수요가 몰린 곳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보증금 1백만원짜리 방은 어떤 수준일까.

“보증금 1백만원이면 월세는 37만원 정도예요. 전세 기준으로 5천만원 정도죠. 크기는 10~13평방미터 정도로, 둘이 살기 버겁죠.”

“월세 지원 바우처제도 도입 고려해 봐야”

조희재씨는 2030세대가 주요 수요자인 월세 상승의 일차 원인은 수익형 부동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깔끔한 외양을 위해 돈이 투자될 수밖에 없고, 투자된 돈이 있으니 상승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최근 등장한 도시형생활주택도 대안처럼 얘기하지만 실제로 같은 크기를 놓고 볼 때 기존 원룸보다 가격이 더 높다고 지적했다.

조희재씨는 “공급만이 대안이 아닌 것 같다”며 바우처제도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학업과 취직 때문에 젊은층이 끊임없이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오고 있어요. 그렇다고 억척스레 살아온 세대인 집주인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도 저항에 부딪힐 겁니다. 그보단 바우처제도를 통해 월세 지원을 한다면 원룸 투자심리를 위축시키지 않고, 방을 구하는 입장에서도 덜 힘들 것 같습니다.”

골목바람 식구들이 주거복지 실현이란 꿈을 펼친 지 7개월째. 지금까지 이곳에서 성사된 계약은 1백20건 정도다.

“아직 성과를 꼽긴 어려워요. 하지만 공동체를 만든다는 우리 핵심철학을 차근차근 실천해 가고 있습니다.”

골목바람 식구들은 하고 싶은 일이 많다. 이곳을 거친 월세입자들이 뭉쳐 대형마트에서 생필품을 공동구매하거나 반찬을 만드는 것도 그런 일 중 하나다. 농촌의 빈집 주인을 찾아주어 농촌 공동화 문제도 해결하고, 내집마련의 꿈도 이루는, 동시에 두 가지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생각하고 있다.

지역의 소외계층에게 따뜻함을 선사하고 싶기도 하다. 그래서 골목바람 식구들은 11월 19일 청년 세입자들과 함께 동네 어르신들을 모시고 서대문 청춘극장으로 서커스 구경을 다녀오기도 했다.

“지금 청년층 평균 급여가 1백만~1백20만원 수준인데, 월세·전기료 등 주거비용만 40만~50만원입니다. 생활비까지 지출하면 인간적인 생활을 할 여유가 없습니다. 월세가 수입의 40~50퍼센트란 건 비정상적입니다.”

골목바람 사무실에는 사회복지사 자격증과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나란히 전시돼 있다.

조희재씨는 “청년층 개인 책임을 따지지만 능력을 키워 급여를 높여 갈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주거문제는 결국 삶과 밀접한 문제여서 결혼, 출산에 영향을 주고 집 구입 의지를 꺾어 버리고 있다. 그래서 집주인의 자선에 의지하기보다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주거문제는 집주인 자선보다 정부개입 필요”

조희재씨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대학생 임대주택 내용을 보니 자신의 고객들 중에 해당하는 분들이 없더라고 지적했다. 신입생은 구할 수도 없고, 군대 가면 끝난다는 것이다. 그는 현장에서 지켜보니 가장 큰 문제가 오롯이 본인 능력으로 해결해야 하지만 능력이 되지 않는 ‘차상위계층’의 청년들이란 지적도 했다.

골목바람 식구들은 언젠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을 수 있기를 희망하지만 당장은 그 틀에 맞추고 싶지는 않다고 했다. 그보다 더 절실한 게 있다. 청년층을 위한 게스트하우스다.

“잠시 일자리를 잃거나 해서 월세 보증금을 빼야 할 경우 어떤 분들은 고시원이나 모텔 등에서 장기투숙도 해요. 하지만 그런 경우 소외감만 더 커집니다. 청년층이 자존감을 지키며 잠시 쉬어 갈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를 만들고 싶습니다.”

꿈을 말하는 조희재씨가 훈훈하게 웃었다. 이렇게 착한부동산 골목바람이 있는 한 보증금 1백만원짜리 방에 들어가도 힘이 날 것 같았다. G

글과 사진·박경아 기자

장애인 스포츠 실업팀 만들어 공생발전

스포츠토토, 휠체어테니스팀 창단… 생계걱정 없이 능력 펼칠 기회 생겨

최근 국내 스포츠엔 '실업팀 해체'라는 칼바람이 불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지난 1년간 5개 시·군 실업팀 27개가 없어졌고, 선수 2백32명이 구조조정 탓에 일터를 잃었다. 이에 비해 장애인 엘리트 스포츠는 조금씩 저변을 넓혀 가고 있다. 장애인스키, 휠체어농구, 휠체어테니스 등…. 몸은 불편하지만 스포츠 열정만큼은 누구한테도 뒤지지 않는 '그들만의 리그'가 기대된다.

지난 11월 15일 스포츠토토가 휠체어테니스팀을 창단했다. 대구 달성군청(2006년 창단)에 이어 이 종목의 두번째 장애인 실업팀이다. 스포츠토토 휠체어테니스팀은 장애인 종목을 통틀어 민간기업이 운영하는 두번째 실업팀이기도 하다. 2008년 하이원리조트가 만든 장애인스키팀이 최초였다.

장애인 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출범한 스포츠토토 휠체어테니스팀은 김삼주·이지환(이상 남자), 박주연·여정혜(이상 여자) 선수로 이뤄졌다. 유지곤 전 국가대표 감독과 주득환 현 국가대표 감독이 각각 감독과 코치를 맡았다. 스포츠토토 여자 축구단을 이끄는 김태근 단장이 휠체어테니스팀 단장을 겸임한다.

김 단장은 "휠체어 테니스는 국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장애인 스포츠 중 하나지만 정식으로 등록된 실업팀은 한 곳뿐이었다"면서 "스포츠토토 휠체어테니스팀 창단을 통해 2012년 서울에서 개최되는 세계선수권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장애인 스포츠 인프라를 확대하는 데 기여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장애인 실업팀 현황 (창단연도 기준, 2011년 11월 17일 현재)

	소속기관	창단연도	종 목	인원
1	청주시청	2004	사 격	8명 (코치1, 트레이너1, 선수6)
2	강원도청	2006	아이스슬레지하키	14명 (감독1, 코치1, 선수12)
3	달성군청	2006	휠체어테니스	4명 (코치1, 선수3)
4	울산광역시	2007	육상	5명 (감독1, 선수4)
5	하이원리조트	2008	스키	3명 (코치1, 선수2)
6	강릉시청	2008	사격	3명 (선수3)
7	서울시청	2010	휠체어농구	11명 (감독1, 트레이너1, 선수9)
8	인천장애인체육회	2010	역도	5명 (코치1, 선수4)
9	인천장애인체육회	2010	배드민턴	5명 (코치1, 선수4)
10	대전시청	2010	양궁	5명 (감독1, 선수4)
11	부산동구청	2011	역도/수영	역도 6명 (감독1, 코치1, 선수4)
12	부산시장애인체육회	2011	수영	수영 1명
13	광주시청	2011	탁구	6명 (감독1, 코치1, 선수4)
14	제주도청	2011	육상/수영	2명 (선수2)
15	천안시청	2011	좌식배구	8명 (감독1, 선수7)
16	한국수자원공사(충남)	2011	조정	3명(코치1, 선수2)
17	스포츠토토	2011	휠체어테니스	6명(감독1, 코치1, 선수4)

자료 대한장애인체육회

사회적 약자 배려하는 정부 정책과도 맞아

휠체어테니스팀의 창단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정부의 정책과도 맥이 통한다. 스포츠토토 김무균 본부장은 "장애인 엘리트 선수들은 운동에 전념하기도, 직업을 갖기도 어렵다. 실업팀에 속해야 생계 걱정 없이 자신들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면서 "민간기업이나 지자체가 실업팀을 만들면 장애인 선수들의 사회 진출과 경제자립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선규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은 축사를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행복한 사회가 우리 정부가 지향하는 목표"라며 "궁극적으로 장애인 선수들이 일반 선수들과 어깨를 나란히 해 실력을 겨루는 모습을 볼 수 있는 날을 꿈꾼다"고 강조했다.

한국수자원공사도 지난 11월 9일 'K-water 장애인 조정선수 입단식'을 열었다. 이재남 코치를 비롯해 장애인 조정선수인 박준하, 이종례 선수가 K-water 팀에 합류했다. 수자원공사 측은 "공기업으로는 최초로 장애인이 포함된 실업팀을 구성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이라는 수자원공사의 기업 설립 목적에 부응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정 종목의 '장애인 실업팀'은 세미 프로화를 뜻하므로 경기력에 많은 향상을 가져온다. 2000년 한국에 도입된 아이스슬레지하키가 좋은 예다. 2001년 처음 국가대표팀을 만들어 일본 원정을 떠난 한국은 0대13으로 지고 돌아왔다.

2006년 강원도청 아이스슬레지하키팀이 생긴 이후 상황은 바뀌기 시작했다. 한국은 2008년 세계선수권대회 B그룹에서 우승해 A그룹으로 올라섰다. 2009년 세계선수권 7위, 2010 밴쿠버 동계장애인올림픽에선 6위를 했다.

1 지난 3월 장애인 테니스대회인 어울림테니스 대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는 이형택, 이번에 스포츠토토 휠체어테니스팀에 입단한 여정혜·박주연 선수, 정병국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왼쪽부터). 2 지난 15일 창단식을 갖고 공식 출범한 스포츠토토 휠체어테니스팀. 국내 두번째 휠체어테니스팀이 창단되면서 장애인 엘리트 스포츠 저변이 확산되고 있다.

이처럼 장애인 실업팀이 창단되면 선수들에게 경제적·심리적 안정을 주면서 경기력 향상이라는 효과를 거둘 수 있고, 국위선양은 물론이고 소속팀의 홍보효과도 누릴 수 있다. 또한 일정규모 이상의 직장에서 의무적으로 실행해야 하는 장애인의 의무고용을 준수한 셈이 된다.

"장애인 실업팀 창단에 세제 등 인센티브 확대"

한국은 2008 베이징 장애인올림픽에서 종합 13위를 했다. 종합 1위를 한 중국은 국가적인 투자로 이미 아시아 수준을 넘어 세계무대에서 독보적인 존재로 자리매김했다. 한국과 중국의 강세 종목이 여럿 겹치는 현상이 빚어졌다. 한국으로선 전략적으로 종목을 선택해 실업팀을 육성해야 국제무대에서의 입지를 확고히 할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민간기업은 '홍보 효과'가 큰 프로 스포츠나 인기종목에 투자하려는 경향이 있다. 아직 장애인체육에 대한 이해와 긍정적 효과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다.

정부가 장애인 실업팀 창단 기업에 대해 장애인 의무고용 가점과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면 육상, 탁구, 유도 등 비인기종목 운동경기부와 장애인 운동경기부를 설치, 운영하는 기관·단체에 대하여 운영비의 10퍼센트를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고 있다. 국민체육진흥법에서는 "상시 근로자 1천명 이상인 공공기관과 공공단체는 한 종목 이상의 운동경기부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G

글·성진혁 (조선일보 스포츠부 기자)

창단 도운 주원홍 장애인테니스협회 부회장

"장애인들에게 희망을 주는 선수단이 되십시오"

주원홍 장애인테니스협회 부회장은 전임 회장이었던 정병국 의원과 함께 스포츠토토 휠체어테니스팀 창단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테니스 영웅' 이형택의 스승으로 유명한 주 부회장은 휠체어테니스와 인연이 깊다. 그는 삼성증권 감독 시절이던 1994년 창단한 연세대 휠체어테니스팀의 지도를 맡았고, 장애인테니스협회가 생기면서 동생인 주원석 미디어윌 회장과 정병국 의원 등을 회장으로 영입하며 정성을 쏟았다.

주 부회장은 내년 5월 아시아에선 처음으로 열리는 월드컵팀 컵 세계선수권대회를 유치했다. 스포츠토토 휠체어테니스팀 창단식이 열렸던 11월 15일은 그의 55번째 생일이기도 했다.

주 부회장은 이날 테니스 팬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읽어 진잔한 감동을 안겼다. 한국 휠체어테니스 태동기부터 지금까지의 발전사를 돌아보는 소회를 담았다.

"저는 참 운이 좋은 것 같습니다. 55번째 생일에 팀 창단을 하게 되어 기쁜 마음으로 테니스 팬들에게 편지를 쓰고 싶었습니다. 삼성증권 감독을 하면서 선수들이 성적을 낼 때 느끼던 기쁨과 다르긴 하지만 휠체어테니스를 위한 봉사를 하면서 큰 보람을 느낍니다. 휠체어테니스팀 선수와 코치진은 장애인 체육을 대표하는 모범적인 선수, 장애인들에게 희망을 주는 선수단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는 내용이었다.

주 부회장은 "장애인 실업팀은 지자체도 선뜻 나서서 만들려고 하지 않는다"면서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따뜻한 마음으로 팀을 만든 스포츠토토 측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한국 온 지 3년 만에 첫 서울 구경이에요"

외국인근로자 90여 명, 창덕궁·북악산 성곽길 등 걸으며 한국문화 체험

일요일인 지난 11월 13일. 서울 창덕궁에 아시아계 외국인으로 보이는 90여 명의 남녀 일행이 눈에 띄었다. 한국인 인솔자의 영어 해설에 귀기울이고 있는 이들은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이 개최한 '2011 외국인근로자 한국문화 나들이'에 참가한 외국인 근로자들이다.

지난 13일 '외국인근로자 한국문화 나들이'에 참가자들이 북악산 서울성곽길을 오르고 있다. 이날은 90여 명의 외국인근로자가 참가해 한국의 아름다운 관광지를 둘러보았다.

"한국에 온 지 3년이나 됐지만 여행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일하느라 바빠 여행은 꿈도 못 꾸었지요. 서울을 지키기 위해 옛날 사람이 쌓았다는 성, 왕이 살았던 궁 등 오늘 본 곳을 스리랑카에 있는 가족들에게 다 얘기할 거예요. 한국 가수들 노래에 관심 많은 식구들에게 서울 여행한 이야기를 들려주면 무척 좋아할 거예요."

경기도 포천의 가구공장에서 일한다는 스리랑카인 라샤드(28)씨가 창덕궁 내 수많은 전각을 신기한 듯 살펴보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태국, 동티모르, 스리랑카 등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온 외국인 90여 명이 참가했다. 이들은 의정부, 부천, 포천 등 경기도에 있는 소규모 제조공장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지역의 다문화센터나 종교단체를 통해 행사 소식을 전해 듣고 참가했다.

"한국의 좋은 이미지 간직하고 확산되는 계기"

현장에 함께한 해외문화홍보원 문화교류과 김학미 주무관은 "지난 6월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전주 나들이 행사를 처음 개최했는데 반응이 좋아 한 번 더 마련한 자리"라며 "외국인 근로자들의 한국 생활 적응을 돕고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여 귀국 후에도 한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간직하고 확산시키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행사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북악산 말바위를 출발한 방글라데시 근로자들이 서울성곽길 숙정문 앞에서 남은 코스를 궁금해하며 성곽 지도를 보고 있다(왼쪽 사진). 창덕궁 입구에서 인솔자의 해설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들. 이들은 한국의 전통문화가 감탄스럽다고 입을 모았다.

단풍이 지고 있는 창덕궁은 늦가을 햇살을 받아 더욱 빛나 보였다. 조선시대 임금님이 살았다는 창덕궁, 앞으로 보게 될 한국의 전통 문화유산을 상상하는 이들의 얼굴에는 호기심이 가득했다.

이날 서울 나들이에 나선 한 외국인 근로자는 "청와대 사랑채에서 북악산으로 오는 길에 버스 창밖으로 본 청와대가 인상적이었다"며 "1년 내내 더운 나라인 동티모르는 기후변화가 뚜렷하지 않아 낙엽이 지는 산길을 걸은 것도 이번이 처음이었다. 시간이 되면 1박2일 여행에도 참여해 지방의 풍경과 문화도 보고 싶다"며 즐거운 표정을 지었다.

휴대폰으로 궁궐 담장, 굴뚝, 나무 등 여기저기 사진을 찍던 친구 마크스(21) 씨는 "한국의 대통령이 거주하는 청와대와 조선시대 왕이 살았다는 창덕궁 등 한국의 현재와 과거를 한꺼번에 보았다"며 "멋진 궁을 보니 한국에 관심이 많은 가족들에게도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다.

인솔자의 말을 꼼꼼히 메모해 가며 창덕궁 정전인 인정전 내부를 유심히 살펴보던 중국인 서애춘(45) 씨는 "중국의 젊은 세대는 한국 가수들의 노래나 화장법, 성형에 관심이 많고 전통문화에 대해선 잘 모른다. 한국은 전통문화를 소중히 여기고 가꾸는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감탄했다.

"한국은 전통문화를 소중히 가꾸는 나라"

이날 포천 섬유공장에서 일하는 방글라데시인 8명과 함께 온 공장 관리팀 장효현(45)씨는 "한국으로 일하러 온 외국인들은 자국에서는 교육을 많이 받은 엘리트층"이라며 "타국에서 온 근로자들에게 관심을 갖고 이런 자리를 제공해 준 한국에 대해 이들이 좋은 이미지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씨는 이어 "이런 행사가 있는지 외국인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지역 다문화센터나 자치단체 등 홍보 경로를 다양화해 많은 근로자가 참가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학미 주무관은 "올해 행사의 추진 성과와 참여자 만족도 등을 반영해 내년에는 좀 더 알찬 프로그램을 마련, 나들이 행사를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들이가 진행된 이날, 날씨는 더없이 좋았고 참가한 외국인들의 표정은 밝았다. 하루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이번 여행은 한국이 오랜 전통과 매력적인 현대 문화가 잘 어우러진 나라로 인식되는 계기가 된 뜻깊은 자리였다. G

글과 사진·박경숙 (공감코리아 정책기자)

2011 외국인근로자 한국문화 나들이

해외문화홍보원은 당일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서울 나들이와 1박2일 안동·영주 나들이 등 총 4회에 걸쳐 한국문화 나들이에 나선다.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관광과 문화 체험을 할 수 있는 코스 위주로 진행되며 오는 26~27일 두 차례 더 나들이가 진행될 예정이다.

11월 27일의 서울 나들이 길은 청와대 앞 사랑채를 둘러보고, 북악산 서울 성곽길을 걷는다. 이어 창덕궁 관람과 '난타' 공연 등 한국의 전통과 현대 문화를 고루 체험해 본다.

26~27일의 1박2일 일정은 첫째 날 안동에서 하회마을과 탈박물관을 둘러보고, 이튿날은 영주 소수서원, 부석사, 선비촌 등을 둘러보며 한국의 멋을 외국인들에게 전한다.

참가 문의 센타투어 www.centertour.co.kr ☎02-730-7311

금연홍보대사 개그맨 박명수

"지금 당장 담배를 버리세요"

개그맨 박명수는 공중파와 케이블을 넘나들며 바쁘게 활동 중이다. 그런 그가 금연홍보대사 역할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담배를 끊은 지 1년쯤 됐다는 그는 "앞으로 어떤 유혹이 와도 평생 금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명수를 지난 11월 14일 MBC <나는가수다> 녹화장에서 만났다.

김충원 기자

개그맨 박명수는 지난 5월 보건복지부 금연홍보대사로 위촉됐다. 그는 "금연은 자기와의 싸움"이라고 강조했다.

박명수는 지난 5월 보건복지부 금연홍보대사로 위촉됐다. 위촉식에서 그는 "아이를 볼 때마다 가족의 건강과 나의 건강을 생각하며 금연을 실천하고 있다"며 "금연 이후 목소리가 좋아지고, 활력도 생겼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금연의 중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려 건강한 대한민국, 담배 없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일조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금연홍보대사가 된 이후 더욱 건강관리에 신경 쓰고 있다는 그는 금연 이후 달라진 자신의 모습에 만족해했다.

이번이 두번째 금연 도전이라고 들었다.

"사실 두번째 금연에 도전하기 전에 7년 정도 금연에 성공했었다. 그런데 일이 바빠지고 스트레스가 쌓이니 나도 모르게 담배에 손이 갔다.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 다시 담배를 끊기로 결심했고, 지금 1년째 금연하고 있다."

'담배는 끊는 게 아니라 참는 것'이란 말이 있다. 그만큼 담배를 영구적으로 끊는 게 어렵다는 말인데, 박명수씨의 경우 완벽히 끊었다고 할 수 있나.

"물론 가끔 흔들릴 때도 있다. 주변 사람들을 봐도 담배의 유혹을 뿌리치는 게 쉽지 않다고 느낀다. 나의 경우 과식을 하거나 음주를 심하게 했을 때 담배 생각이 나기 때문에, 아예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최근에는 술도 줄이고 식사량도 줄였더니, 담배 생각이 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건강까지 좋아졌다."

어떤 방법으로 금연에 성공했는지가 가장 궁금하다. 금연보조제를 활용하는 사람도 있고, 담배 생각이 날 때마다 운동을 한다는 사람도 있다.

"담배를 끊는 데는 왕도가 없다. 금연은 자기와의 싸움이다. 본인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금연보조제도 이용해 봤지만 내 경우 오히려 금연보조제 자체에 의존하게 돼서 힘들더라. 이후 '무조건 참는 것'이 제1의 방법이 됐다. 스트레스가 심하게 쌓이면 흡연 욕구가 강해지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줄이고 운동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금연을 하면서 달라진 점은.

"일단 몸이 가벼워졌고 호흡도 편해졌다. 전에는 자주 피곤하다고 느끼고 일할 때 집중력도 떨어졌는데, 금연에 성공한 이후 피로가 덜 쌓이는 것 같다. 목소리가 부드러워지고 활력이 생긴 것은 물론 동료 개그맨 유재석씨를 비롯한 주변 사람들에게 '결단력'도 인정받았다."

주변에 금연을 권해본 적이 있나.

"없다. 다들 건강을 해칠 때 나만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서 지금의 인기를 유지하고 싶다(웃음). 농담이고, 주변 사람들에게 항상 권한다. 지금은 한두 사람씩 금연에 도전하고 있다."

길거리에서의 흡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전에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공원 한복판에서 흡연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다. 그 사람이 뿜어내는 담배 연기가 고스란히 뒷사람에게 가는 것을 보고 아차 싶었다. 사람이 많이 지나다니는 길거나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다시 한 번 실감하게 됐다."

전국의 많은 공공장소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고 있다. 이에 대한 생각은.

"환영한다. 공공장소의 금연구역 지정이 간접흡연 때문에 피해를 보는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간접흡연이 직접흡연보다 훨씬 위험하다는 사실은 많은 분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한다. 금연구역이 차차 늘어나서 흡연자들도 금연에 성공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담배 수요 감소 가격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2012년 한국에서 총회가 개최되는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 그 내용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안다. 특히 청소년들의 담배 수요를 감소시키는 데는 가격정책만큼 효과적인 수단이 없다. 담배 한 갑 가격을 20만원 정도로 끌어올려서, 모두들 돈 아까워서 담배를 못 피우게 해야 한다(웃음). 수요 감소 가격정책뿐만 아니라 수요 감소 비가격정책, 공급 감소 정책 등도 활발히 시행돼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보건소 금연클리닉이나 금연지원프로그램이 잘돼 있다고 들었다.

"전국 모든 보건소에서 금연클리닉을 운영하는데 금연 상담을 통해 금연보조제를 지원하고 전문 금연상담사가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귀찮다 생각하지 말고 한번씩 방문해 보길 권한다.

'보건소' 하면 '낙후된 시설'일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가 보시면 알겠지만 최첨단 시설을 자랑한다(웃음). 금연상담전화 1544-9030으로 전화하면 금연성공 30일 프로그램도 이용할 수 있다."

2011년이 한 달 남짓 남았다. 연말 송년회때 술과 담배 소비량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어떻게 흡연 욕구를 절제해야 하나.

"'이것만 피우고 끊어야지', '이달까지만 피우고 끊어야지'하면 금연은 물 건너간다. 기간을 두고 차차 끊으려는 생각은 애초에 접어라. 지금 당장, 피우던 담배부터 버리지 않으면 금연 성공은 힘들다. 또 담배에는 대체재가 없다는 것을 명심했으면 좋겠다. 무조건 의지, 의지다!" G

글·박소영 기자

보건소 금연클리닉

	상담내용	주기
등록	• 금연의지 확인, 금연준비 확인 • 금연방법 결정	등록
금연상담	**금연보조제 제공** • 금연보조제 사용법 설명 • 금연보조제 부작용 확인 **금연상담 제공** • 금연실천 확인 및 지지 • 금연의 장점과 흡연의 위해 비교 • 흡연욕구 조절 • 음주 등 불건전 행위 파악 **보건소 금연클리닉 평가** • 4주 및 6개월 금연성공률 조사 • 보건소 금연클리닉 만족도 조사	결심일 이후 1일~6개월
추후관리	**금연유지 프로그램** 방문상담, 전화상담, SMS, 이메일 등	결심일 이후 6~12개월

자료 보건복지부

흡연자를 위한 금연지원 프로그램

금연 길라잡이 nosmokeguide.or.kr

금연 길라잡이는 흡연 예방법에서부터 금연방법까지 모든 정보를 망라한 웹사이트다. 국내 금연정책과 이에 관련된 법률·통계 자료는 물론, 금연매거진과 전문가 칼럼도 볼 수 있다. 성인, 여성, 청소년, 아동 등으로 카테고리가 나누어져 있어 계층별로 이용이 가능하며,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온라인 상담실도 이용할 수 있다. 니코틴 중독이나 스트레스 정도에 대한 자가 진단도 가능하다.

금연 상담전화 ☎1544-9030

30일 동안 전문 금연상담사에게 무료로 일대일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상담은 예약상담제를 통해 원하는 시간에 진행된다. 30일 금연성공 이후에는 최대 1년까지 재흡연 방지를 위한 스트레스 관리, 식이요법 등 지속적 상담을 제공한다.

차이나타운은 인천 개항 후 산둥지방의 중국인들이 대거 몰려오면서부터 형성됐다고 한다. 공화춘을 시작으로 중국집들이 생겨나면서 주말이면 나들이객들로 북적인다.

인천 차이나타운

이국적인 거리에서 원조짜장 먹고 시간이 멈춘 골목엔 옛 추억 한 자락

인천 차이나타운은 당일치기 여행코스로 손색이 없다. 중국풍으로 꾸며진 거리를 걷고 짜장면과 만두를 맛보며 거리 이곳저곳을 구경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 차이나타운에서 신포시장으로 가는 길에는 우리의 근대사 흔적도 찾아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일본식 집들도 많아 근사한 사진도 찍을 수 있다.

인천역에서 내려 출구를 빠져나오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 '패루(牌樓)'다. 패루는 중국에서 큰 거리를 가로질러 세워진 시설물이나 공원 어귀에 세우던 문이다. 패루를 지나면 본격적으로 차이나타운에 접어든다. 온통 붉은색 일색이다. 수십 개의 중국 음식점과 상점, 관운장을 모시는 의선당, 중국풍으로 꾸며진 주민센터 등 거리 곳곳이 중국을 옮겨놓은 듯하다.

커다란 용장식물이 있는 북성동 주민센터를 지나면 '공화춘' 건물이 나온다. 한국식 짜장면의 발상지로 알려져 있는 곳이다. 1905년 지어진 2층짜리 목(目)자형 구조물로 전형적인 청나라 양식을 따랐다. 화교 출신 우희광이 1911년 이곳에서 중국 음식점을 개업해 유명해졌다. 중화민국 수립을 기념해 '공화국의 봄'이라는 뜻의 공화춘(共和春)이라고 했다고 한다.

'삼국지 벽화거리' 지나 언덕엔 자유공원

짜장면이 처음 태어난 것은 인천 개항 후 산둥지방의 중국인들이 대거 몰려와 청요리집들이 생겨나면서부터라고 한다. 청요리가 인기를 끌자 누군가가 부두 노동자들을 위한 싸고 손쉬운 음식을 생각하게 됐는데, 산둥지방에서 즐겨먹던 춘장으로 짜장소스를 만들어 국수를 비벼먹게 만든 것이 짜장면의 탄생이라는 설이 있다.

공화춘에서 '삼국지 벽화거리'가 가깝다. 삼국지의 명장면 1백60개를 벽화로 그려 만들었다. 벽화는 삼국지의 역사적 사실을 고사성어와 그림으로 잘 표현하고 있어 길을 걷다 보면 삼국지 이야기가 새록새록 떠오른다.

벽화거리를 지나 언덕을 오르면 자유공원이다. 개항 당시만 해도 '각국공원'으로 불리며 '존스턴 별장'을 비롯한 외국인 사택과 공장 등이 들어서 있었지만 1950년 한국전쟁 당시 폭격으로 초토화되면서 대부분 소실됐다. 현재는 인천상륙작전의 시발이 된 월미도를 바라보는 맥아더 장군의 동상과 한미 수교 1백주년 기념탑 등이 남아 있다. 뱃머리 모양의 전망대에 오르면 가깝게는 인천항, 멀게는 인천대교까지 내려다보인다.

옛 인천의 모습을 더듬을 수 있는 배다리골

인천에는 개항장으로서의 인천의 모습이 아직도 남아 있다. 제물포는 1883년 개항했는데 서구 열강과 일본, 중국 등 외세는 인천에서 그들에게 익숙한 건물을 지으며 조선을 넘봤다. 외세는 오래전 떠났지만 건물은 남았다. 1백여 년 전 국내 초기 서양식으로 지어진 일본은행, 답동성당, 인천우체국, 제물포구락부 등이 지금은 색다른 건축미를 자랑한다. 신포동 거리를 비롯해 차이나타운, 자유공원 일대에는 근대 개항기의 인천을 느낄 수 있는 근대건축물이 곳곳에 있다.

인천시는 이들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천개항누리길' 코스를 만들었는데, 짧게는 1시간에서 길게는 3시간 코스로 짜여 있다. 출발지는 인천역 앞에 자리한 인천관광안내소다.

1시간 코스는 차이나타운~자유공원~조계지계단~중구청~일본은행~한중문화관이며, 2시간 코스는 홍예문~인천우체국~중구청, 3시간 코스는 여기에 답동성당~신포쇼핑타운이 추가된다. 인천관광안내소에서 관광 지도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차이나타운 가까이 배다리골이라는 곳이 있다. 꼭 한 번 들러볼

차이나타운을 상징하는 패루(위 사진). 차이나타운 곳곳에선 중국에 온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다.

1 배다리골의 터줏대감 아벨서점. 2 옛 양조장 건물에서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한 '갤러리 스페이스 빔'. 지역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미술교실 등을 운영한다. 3 중국식 정원.

만한 곳이다. 현대식 고층 아파트 한 편에는 헌책방 골목과 여인숙 골목 등 옛 인천의 모습을 더듬어 볼 수 있는 골목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배다리골 여행의 시작은 동인천역 앞 중앙시장이다. 중앙시장은 한복 골목으로 유명했다. 1·4후퇴 당시 황해도에서 내려온 실향민 가운데 바느질 솜씨가 좋은 아낙네들이 옷가지를 만들어 내다 파는 가마니 좌판을 벌인 데서 비롯됐다고 한다. 지금도 크고 작은 한복 매장 70여 곳과 침구와 커튼을 파는 가게들이 모여 있다.

중앙시장 한 편에는 '양키시장'이 있다. 미군부대에서 흘러나온 물건과 인천항으로 드나드는 외국인들이 몰래 들여온 물건을 팔았다. 군화와 수통, 벨트, 반합 등 군용품과 로션, 커피, 양주, 땅콩, 캐러멜 등을 살 수 있었다. 갑자기 단속이 나오면 순식간에 사라지다 보니 '도깨비 시장'이라 불리기도 했단다. '양키시장'은 1980년대 후반 이후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는데 현재는 서울 남대문시장에서 구입해 온 외제 화장품과 커피, 양주 등을 팔면서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정도다.

중앙시장을 나오면 배다리 삼거리가 나온다. 몇 걸음 모퉁이를 돌아 들어가면 흔히 볼 수 없는 풍경이 펼쳐진다. 길조여인숙, 성진여인숙, 진도여인숙 등 요즘 보기 드문 여인숙들이 좁은 골목에 가득하다.

여인숙 골목을 빠져나오면 우각로다. 아스팔트가 깔린 왕복 2차선의 큰 길이다. 이곳에 배다리의 최대 명소인 헌책방 골목이 있다. 한국전쟁 이후 폐허가 된 배다리에 리어카 책방이 모이면서 만들어졌는데 그 수만 40여 개에 이르렀다고 한다. '작은 청계천'이라 불리던 골목에는 새 학기가 되면 교과서와 참고서를 구입하기 위해 찾아온 학생들로 붐볐다. 헌책방 골목 역시 지금은 한산하다. 대여섯 곳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헌책 마니아들의 성지 '아벨서점'은 문화사랑방

골목 초입의 '아벨서점'은 37년 내력을 지닌 헌책방 골목의 터줏대감이다. 헌책 마니아들에게는 '성지'로 꼽힌다. 요즘은 시 낭독회 같은 문화 행사가 열리기도 한다. 책방 안은 소설, 시집, 사회과학 서점, 예술서적, 아동서적, 참고서 등을 꽂아놓은 책장이 빼곡하게 들어서 있다.

우각로는 개항장으로 들어온 서구 문물을 서울로 전하던 곳답게 최초의 공립 보통학교인 창영초등학교와 미국 감리교회 여선교사를 위한 기숙사 등이 남아 있다. 모두 1백년도 더 된 건물이다. 1920년대 문을 열어 인천의 막걸리 '소성주'를 제조했던 옛 양조장 건물도 있는데 현재 '갤러리 스페이스 빔'으로 사용되고 있다. 사진, 미술, 건축 등 다양한 전시를 열고 지역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미술교실 등을 운영한다.

배다리골에서 수도국산이 가깝다. 수도국산은 일본인들에 의해 강제로 쫓겨난 조선인들의 보금자리였고 한국전쟁 때에는 피란민들이, 1960~70년대에는 일자리를 찾아 몰려든 사람들로 북적였다. 지금은 아파트 단지와 공원으로 바뀌어 옛 모습은 거의 찾아볼 수 없지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산비탈 사이로 꼭대기까지 3천 여 가구가 모여 살던 인천의 대표적 달동네였다. 이곳에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이 있다. 전시되어 있는 물건 대부분은 달동네에서 생활했던 사람들이 기증한 것이다. G

글과 사진 · 최갑수 (시인 · 여행작가)

여·행·정·보

가는 길 경인전철 종점인 인천역에서 내리면 바로 앞에 차이나타운이 보인다. 주차공간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경인선을 타고 인천역에 내리거나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먹을 곳 차이나타운에 짜장면을 파는 중국집이 늘어서 있다. 집마다 다른 맛을 낸다. **자금성**(032-761-1688)은 〈1박2일〉에서 은지원이 맛보았던 사천짜장을 판다. 방송 이후 사천짜장을 주문하는 고객이 급증하면서 열 명 가운데 예닐곱은 사천짜장면을 주문한다고. 짜장면을 선보인 최초의 중국집으로 유명한 **공화춘**(032-765-0571)은 4층 건물의 대형 중국집으로 한국인 대표가 운영하는 곳이다. 공화춘의 이름을 건 대표메뉴인 공화춘짜장면은 춘장에 중하, 전복, 갑오징어 등 해산물과 채소가 푸짐하게 들어 있어 먹음직스럽다. **원보**(032-773-7888)는 어른 주먹만 한 왕만두로 유명하다. 차이나타운에서 10분 정도 걸어가면 신포시장이다. 신포시장의 **'신포닭강정'**(032-762-5800)이 유명하다. 기름에 두 번 튀겨내서 더욱 바삭하며 매우면서도 달콤한 소스도 일품이다.

문의 인천관광안내소 032-777-1330

‘조선 최고의 정승’ 누구라 생각하십니까

〈조선왕조실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다고 말하면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진짜 뛰어난 임금은 누구였고 진짜 훌륭한 정승은 또 누구였는가이다. 당연히 가장 뛰어난 임금은 세종대왕이다. 그러나 정승의 경우에는 일장일단이 있기 때문에 누구라고 딱 찍어 말하기가 쉽지 않다.

다만 사석에서 필자는 주저 없이 명종과 선조 때의 정승인 이준경(李浚慶·1499~1572)을 꼽는다. 그가 살았던 시대는 참으로 격랑의 시절이었다. 연산군 말기에 태어난 이준경은 조선 초 최고 명문가의 하나였던 광주 이씨였다.

그의 할아버지 이세좌는 성종 때 폐비 윤씨에게 사약을 전하는 임무를 맡았던 승지였다. 훗날 판서에까지 올랐지만 연산군이 광기를 발휘하면서 첫번째 희생자가 됐고 그 바람에 홍문관 수찬으로 앞날이 창창했던 아버지 이수정마저 참형을 당했다. 1504년 갑자사화였다.

여섯 살 이준경은 한 살 많은 형 이윤경과 함께 충청도 괴산으로 유배를 가야 했다. 중종반정으로 인해 유배에서 풀려난 이준경은 남들보다 늦은 1531년에 문과에 급제해 벼슬길에 들어선다.

2년 후 홍문관 부수찬이 된 이준경은 조광조로 인해 발생한 기묘사화(1519년) 때 피해를 당한 사림파를 옹호하다가 권력자인 김안로에 의해 파직당한다. 이준경은 김안로가 제거되자 다시 관직으로 돌아온다.

중종이 죽고 인종에 이어 명종이 즉위하자 다시 조정에 피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1545년 을사사화였다. 다행히 그때는 평안도관찰사로 나가 있었기 때문에 사화를 피해갈 수 있었다.

실은 그에 앞서 사림들이 명종 때의 최고실력자 윤원형의 형 윤원로를 지목하여 죽이려 한 적이 있었는데 당시 이준경이 적극 반대하여 좌절시킨 적이 있었다. 그때의 일에 대한 고마움에다가 이준경의 덕망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윤원형이나 문정왕후는 이준경을 우대했다.

1555년 왜구들이 전라도 일대를 점령한 을묘왜변 때는 전라도순찰사가 되어 왜적을 퇴치하는 데 큰 공을 세웠고 이후 우의정, 좌의정을 거쳐 마침내 영의정에 오른다.

이준경에 대한 일화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다. 그중 지금도 종종 조선사에 조예가 있는 사람들이 꼽는 이준경의 곧음과 관련된 일화는 아들이 홍문관 후보에 올라오자 그 자신이 앞장서서 “내 아이는 이런 재목이 못 된다”고 해서 낙방시킨 것이다. 이런 이준경이었기에 어느 누구도 그에 대해 말을 할 수 없었다.

연산군 때 갑자사화로 조부·부친 희생
뒤늦은 벼슬길 우여곡절 끝에 영의정에
적통 끊긴 왕실서 잡음 없이 선조 옹립
“붕당의 조짐” 유언상소 3년 뒤 당파싸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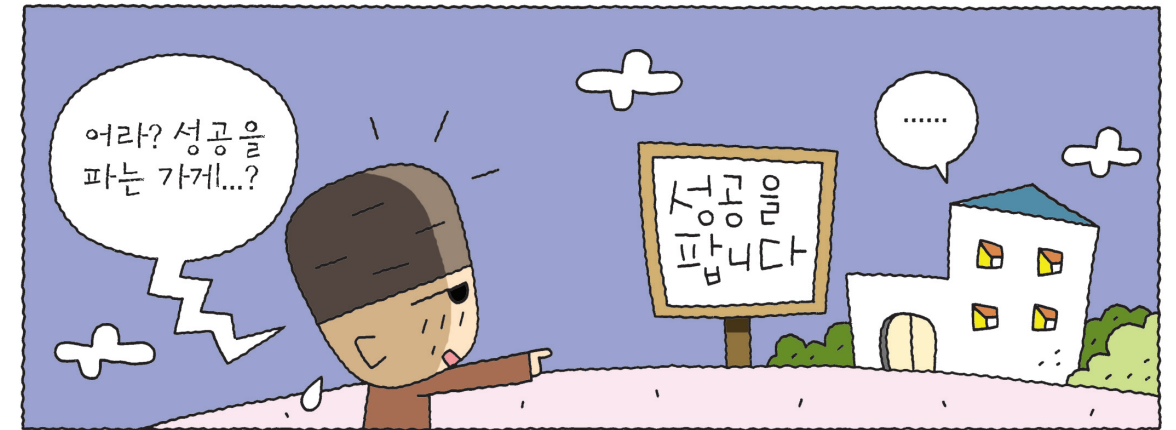
명종이 세상을 떠나자 조선왕실의 적통은 끊어졌다. 그리고 중종의 후궁이었던 안씨의 손자 이균이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 위급한 상황에서 아무런 잡음이 생기지 않도록 왕위계승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던 것도 이준경이었기에 가능했다.

이준경은 자신이 고르다시피 한 새 임금 선조가 명군이 되기를 희망했다. 그래서 이황이나 기대승을 불러들여 어린 선조의 학문 연마를 돕도록 했다. 그러나 선조는 머리는 좋았지만 자신감이 없었다.

선조 5년 74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나며 이준경이 선조에게 올린 유언상소는 절절하다. 그중 핵심은 “사사로운 붕당의 조짐이 있습니다”이다. 당쟁의 씨앗을 보았던 것이다. 실제로 3년 후인 선조 8년부터 당파싸움이 본격화된다.

글·이한우 (조선일보 기획취재부장)

성공을 파는 가게!?

글과 그림 · 최영순

성공이란 세월이 흐를수록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점점 더 나를 좋아하는 것이다.
- 짐 콜린스(미국의 경영학자)

미술계의 레이디가가 '독창과 실험' 한자리에

〈데이비드 라샤펠 한국 특별전〉

예술의전당

〈데이비드 라샤펠 한국 특별전〉에서는 독특한 상상력과 그 속에 담긴 강력한 스토리를 표현해 내는 작가 데이비드 라샤펠의 작품 1백80여 점을 만나볼 수 있다.

'미술계의 레이디가가(Lady GaGa)'로 불리는 데이비드 라샤펠의 작품이 예술의전당 한가람디자인미술관에서 전시된다.

데이비드 라샤펠은 세계 유명인들이 함께 작업하고 싶어하는 포토그래퍼이자 팝아티스트다. 최근에는 〈아메리칸 포토 매거진〉이 선정한 '전 세계 사진계에서 가장 중요한 10인'에 선정되기도 했다.

내년 2월 26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는 유명인사를 담은 작품을 비롯해 재해·죽음·소비·축적 등을 주제로 한 1백80여 작품을 선보인다.

라샤펠은 그동안 암울한 미래를 많이 다뤄 왔다. 미켈란젤로의 'The Deluge'에서 영감을 얻은 〈Deluge(대홍수)〉는 물질주의를 비판한 작품이다. 〈Museum(미술관)〉은 미술시장과 미술소유 개념을 비평, 〈Cathedral(대성당)〉에서는 영적 가치의 소멸을 다루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가 낳은 부에 대한 욕망을 풍자하는 등 팝아트적 요소를 가미한 것도 특징 중 하나다. 〈Consumption(소비)〉, 〈Accomulation(축적)〉 시리즈의 작품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시는 긴 여운을 통해 우리의 지난날과 앞날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한다. G

정리 · 김이슬 인턴기자

일시 2012년 2월 26일까지 **장소** 예술의전당 **문의** 02-566-0835

공연 **2011 Charity Peace Concert** 지구촌 곳곳에서 재난과 재해로 힘겨워하는 이들에게 희망을 선물할 공연이 열린다. 세계평화의 날 30주년을 맞이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서는 뮤지컬 갈라쇼 형식으로 〈드림걸즈〉의 'One Night Only'와 'Listen', 〈명성황후〉의 '나의 운명은 그대', 〈미스사이공〉의 'Last Night of the World'를 선보인다.

일시 11월 29일 **장소**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문의** 070-7732-5900

전시 **오리지널 인체의 신비**

지난 2002년 한국 전시회 당시 2백50만 명이라는 기록적인 관람객수를 동원한 〈오리지널 인체의 신비〉가 다시 한 번 한국을 찾았다. 이전 전시와 달리 올해 전시는 스토리가 있다는 점이 색다르다. 시간의 흐름에 따른 사람의 탄생, 성장, 노화의 진행 과정을 담았다. 예술성도 가미했다. 이전 전시의 표본들이 그냥 서 있었다면 올해의 표본들은 색소폰 연주, 높이뛰기, 피겨스케이팅을 하는 모습 등으로 생동감을 더했다.

일시 2012년 3월 8일까지 **장소** 용산전쟁기념관 **문의** 02-541-31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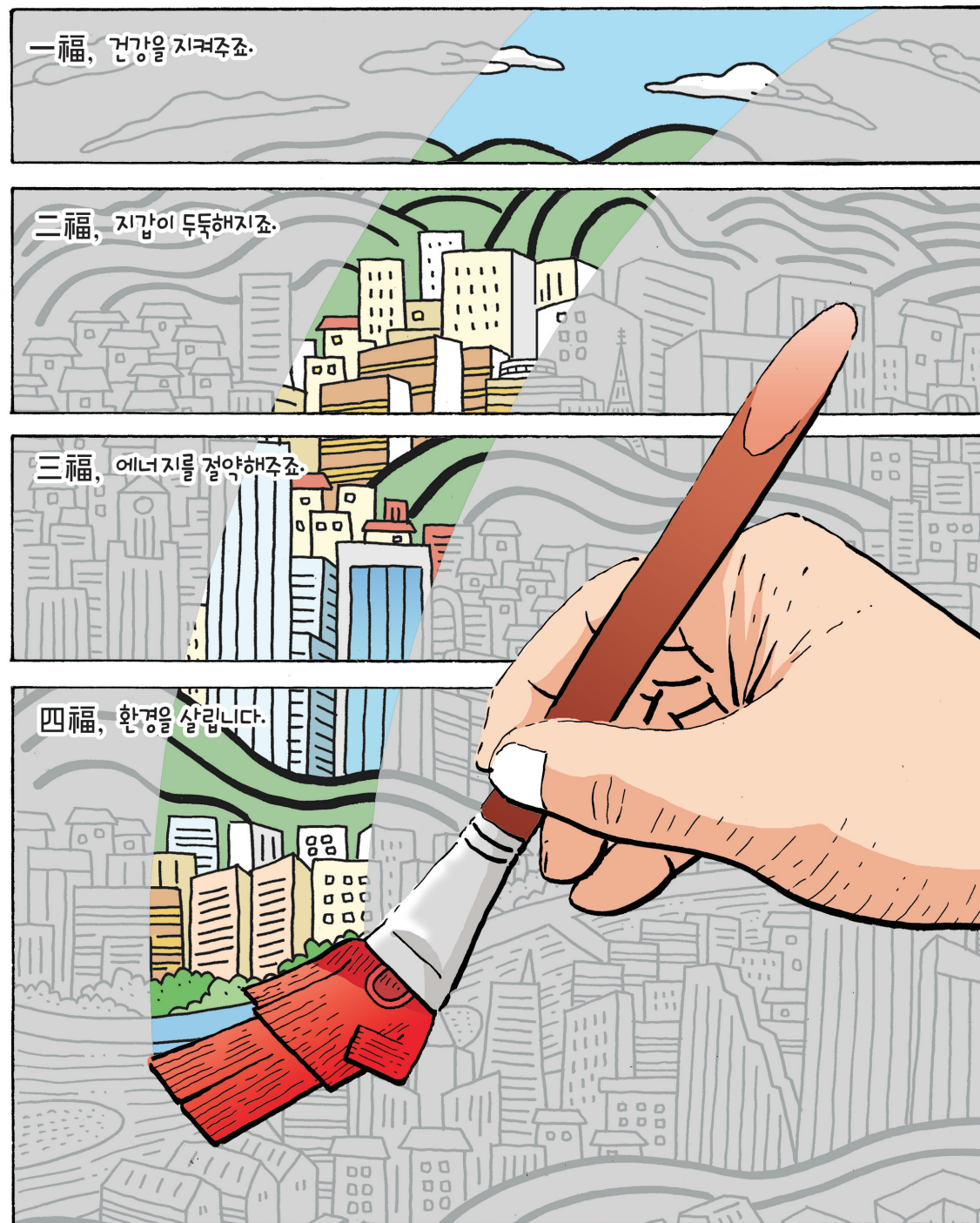
축제 **양평 김장축제** 올겨울 김장철을 맞아 미리 김장 준비를 체험할 수 있는 김장축제가 곳곳에서 열린다. 그중 양평군 농촌체험마을에서 진행하는 김장축제는 고송리 마들가리마을, 연수리 보릿고개마을 등 총 7개 마을이 참여한다. 김장축제는 마을에서 직접 수확한 배추와 재료로 다양한 김장법 및 먹거리 체험을 할 수 있다. 방문객들은 고무장갑, 앞치마, 김장통 등만 준비해 가면 된다.

일시 12월 31일까지 **장소** 양평군내 농촌체험마을 **문의** 031-774-5427

11월 셋째 주 가온차트 가요 인기순위 (11월 6일~11월 12일)

곡명	가수
1 Be My Baby	원더걸스
2 죽고 싶단 말 밖에	허각
3 서쪽 하늘	울랄라세션
4 클렌징크림	브라운아이드걸스
5 그리워 그리워	노을
6 Swing Baby	울랄라세션
7 Me, in	원더걸스
8 막걸리나	버스커 버스커
9 그 남자 그 여자	포맨, 미(美)
10 Girls Girls	원더걸스

내福입기

구성 | 권우영
그림 | 안종만

겨울철 내복 입기는 생활 속 에너지절약 실천입니다.

‘과거’가 돌아왔다

조금 성급한 감이 있지만 미리 2011년 음악계를 정리한다면 아마도 네 가지의 흐름이 지배했던 한 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아이유 대세, 세시봉 음악의 재림, 〈나는 가수다〉를 위시한 오디션 방송프로의 득세, 그리고 K팝의 구미시장 진출이 그것이다. 앞의 세 가지는 내수시장의 키워드였고, K팝은 말할 것도 없이 바깥의 흐름이다.

안팎으로 모처럼 대중음악이 위용을 뽐내고 분발했던 한 해였음은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할 것이다. 작년까지 음악 판은 오로지 아이돌 음악과 걸그룹밖에 보이지 않았다. 여기서 올해는 이전과 달리 아이돌 음악에 대한 작용뿐 아니라 '반작용'이 활발했다는 사실을 유추해 낼 수 있다.

K팝의 해외시장 공략을 제외한 다른 세 가지 흐름에는 뚜렷한 공통점이 발견된다. 그것은 과거의 재림(再臨)이다. 세시봉은 1970년대에 득세했던 포크가 돌아온 것이었고 〈나는 가수다〉와 같은 오디션 프로는 잊을 뻔했던 무수한 저 옛날의 명곡을 사람들이 재발견하도록 해 준 순기능을 발휘했다.

무명가수든 유명가수든 경연에 참가한 상당수 출전자들이 들고 나온 덕분에 조용필의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 남진의 '님과 함께', 신중현의 '미인', 김현식의 '내 사랑 내 곁에'와 같은 오래전의 노래가 다시금 주목받게 된 것이다. 이 노래들에는 어른들은 물론 젊은 세대도 반응했다. 오디션 프로의 높은 시청률이 아니었으면 이게 과연 가능했을까. 대중음악에도 명곡, 명작, 명품이 있다는 것을 깨친 것만으로 의미 있는 일이다.

'좋은 날'로 연초 분위기를 독점하다시피 한 아이유 현상도 이면을 들여다보면 현재보다는 과거에 가깝다. 아이돌 가수들이 가창력과 관련해 4초가수니 5초가수니 하는 비판여론이 몰리던 시점에 때마침 3단고음의 '좋은 날'이 나왔다. 타이밍의 승리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적어도 가수에게는 가창력이 전가의 보도임을 확인한 것이다. 아무리 화려한 군무와 비주얼이 중요하다지만 옛날에 그랬듯이 노래를 잘하면 통한다는 사실이 아이유 대세의 메시지였던 셈이다.

과거는 흘러가지만 놀랍게도 다시 돌아온다. 특히 문화적 흐름은 순환이 기본임을 역사는 반복해서 증명하고 있다. 아이돌 그룹이 독점일 때 1970년대의 포크송과 록이, 1980년대의 발라드가 새로운 세대와 접목한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다. 하지만 1980년대 '댄싱 퀸' 김완선이 돌아와 집중세례를 받는 것 같은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게 2011년 음악계다.

세시봉·오디션 프로, 음악시장에 순기능 역할

중요한 것은 세 가지 과거의 재림 흐름이 K팝과 대립하는 상황, 충돌하는 양상으로 파악해서는 곤란하다는 사실이다. 솔직히 거대 기획사들이 아이돌 음악으로 해외시장 개척에 돌입한 것은 내수시장에서는 한계에 부딪힌 데 따른 불가피한 전략의 측면이 없지 않다.

한류가 해외에서 아무리 혁혁한 성과를 거두더라도 정작 한국의 음악시장이 온전하지 못해서는 장기화를 꾀할 수 없다. 내수시장이 든든해야 다양한 콘텐츠들을 끊임없이 바깥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것이니까.

인디음악의 부상이 현상이랄 것까지는 아니지만 올해 지속적으로 언급되고, 성공한 인디 밴드도 나왔다는 것 또한 내수시장의 건강지수를 높여 주는 흐름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문제는 '돌아온 과거가 얼마나 오래가겠느냐'는 점이다. 사실 세시봉은 상반기가 넘어서면서는 현저히 관심이 쇠퇴했다. 이런 게 불안하다.

방송이 주도한 흐름은 일회성에 그친 경우가 많다. 음악계는 내년도 대중이 음악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방법 개발에 골몰해야 한다. 잘되면 2011년은 새천년 들어 변화의 기틀을 마련한 의미 있는 해로 기록될지 모른다. 내년이 기대된다. G

글 · 임진모 (대중음악평론가)